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박 영 신[†]
인하대 교육학과

김 의 철
인하대 경영학부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토착심리를 탐구하는데 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개인 삶의 질로는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에서의 삶의 질이 포함되었다. 분석대상은 총 3,406명으로서 남녀 초, 중, 고, 대학생 1,331명과 그들의 부모 및 교사 2,075 명이였다. 김의철과 박영신(2004b)이 제작한 자유반응형 질문지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경제적 요인, 국민들의 노력, 문화여가생활, 원만한 인간관계, 올바른 정책, 교육수준이,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 경제 불안, 정치 불안, 시민의식 결여, 집단 이기주의, 부정부패 비리, 여가생활 부족, 과도한 교육열이 지적되었다. 둘째, 개인의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은 화목한 가족관계와 경제적 여유가,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은 친구관계와 학업성취가, 직장생활에서 삶의 질은 원만한 인간관계와 경제적 요인 및 성취감이, 여가생활에서 삶의 질은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여유 및 인간관계가 중요하였다. 셋째, 세대집단별 인식 차이가 있었다. 한국 사회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 학생은 정치 불안을, 성인은 경제 불안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가정생활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 학생은 가족 간의 갈등을, 성인은 경제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여가생활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 학생은 시간 부족을, 성인은 경제적 여건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넷째, 학생은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자기의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성인의 경우는 나이와 관계없이,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생활에서 성취도가 높을수록, 자기의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삶의 질 인식을 통해 본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원만한 인간관계, 경제적 요인, 자기조절, 교육적 성취의 네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삶의 질, 토착심리, 세대차이, 인간관계, 자기조절, 교육적 성취, 경제적 요인

[†] 교신저자 : 박영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E-mail : yspark@inha.ac.kr

행복한 삶에 대한 공통의 욕구와 다양한 접근 방식

삶의 질을 높여서 더욱 행복하게 잘 살아보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공통된 욕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병원에 가서 불편한 곳을 치료하는 것이나,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나, 재미있는 일에 몰입하는 것이나, 의미 있다고 인식하는 작업에 헌신하는 것이나, 많은 선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나, 심지어는 득도를 위해 속세를 떠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신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욱 행복하게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개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인류가 이루어온 결과들, 예컨대 의료기술 및 과학의 발전, 경제적인 성취,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활성화, 예술적인 성과, 종교적 예식이나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람들의 높은 삶의 질이나 진정한 행복에 대한 염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정신은 모든 사람들의 공유된 목표라고 할 수 있으나,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느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방식의 차이가 행동 양태의 차이를 유발하고, 나아가서 인간의 삶의 양식에 변산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 등에 대한 강한 집착력을 갖고 전력투구를 하는 삶을 추구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나눔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선행이나 사회환원의 방식을 선택한다. 이러한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이 매우 이질적이며 때로는 극단적으로 다르다.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려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다양한 방식과 다른 과정이 존재하는 것일까? 각 개인마다 살아온 삶의 역사가 다르고, 그 개인이 처한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독특한 경험들을 하며, 결과적으로 풍부한 부분과 결핍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조합이 매우 달리 구성된다는 점은, 질문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축적된 경험들을 토대로, 때로는 결핍되었던 부분을 충족시키고자 하고, 때로는 풍부했던 부분을 더 확대시키고자 하고, 때로는 어떠한 에너지도 느끼기 어려운 고갈되는 무기력으로 빠져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하기도 하며, 인간의 행동이 시시각각 변화해 나간다.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이, 어떤 하나의 원인이나 요소나 차원에 의해서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요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다차원적 구성을 이루어 내는 과정과 맥락에서 매순간 인간의 행동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질적으로 다른 문화적 가정들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개인에게 삶의 역사가 있어 행동양식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도 집단 특유의 공통의 역사를 통해 축적된 집단 경험과 이로 인해 공유되는 삶의 양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그 집단이 갖는 하나의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정보화 사회를 나아가고 있는 청소년 집단들

의 공유된 경험은 그 세대집단들이 공유하는 문화를 구성하고, 농경 사회를 살아온 노인 집단들의 공유된 경험은 그 세대집단들이 공유하는 문화를 구성하고 있다. 예컨대 인정적 관계주의를 토대로 하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가정과, 합리적 개인주의에 토대로 하는 서양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가정은 질적으로 다르다. 인간의 행복 추구라는 궁극적 목적은 같다 하더라도, 문화적 기본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나 해결 방식이 다르고 결과적으로 행복의 구성 요소나 그러한 요소들의 기능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개인 행동 차원에서든 집단 역동 차원에서든 다른 문화적 가정들은, 동일한 자극이나 처치도 동일한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들을 산출해 내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 Kim(1999)은 과학적 심리학의 역사에서 가정해온 일반 심리학이 채택하고 있는 선형모형이 갖는 편협성을 지적하고, 상호작용모형의 가정이 인간 행동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모형의 핵심적 요소가 바로 작인으로서의 인간인데, 그러한 작인으로서의 인간을 구성하는 바탕에 문화적 가정과 문화적 요소가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각 사람이나 각 집단이 어떠한 구체적 목표를 갖고 있는지, 기본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지 등에 따라 환경적 자극이나 결과적 산출에 대한 상호작용의 방식과 질을 달리 형성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체적인 작인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가정의 뿌리는, Bandura(1997)가 제안한 개인과 행동과 환경이라는 세 요소간의 상호작용 모형으로부터 찾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문화적 가정들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Hofstede(1991)가 제안한 틀에 따라, 한국 사회가 집단주의적이고 여성성이 높으며 불확실성은 회피하는 문화라는 설명도 한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큰 방향을 잡아 주는 것으로 보인다. Kim(1995)이 정리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회의 기본 가정과 사회적 관계적 심리적 차이에 대한 비교 문화적 분석은, 한국 사회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보다 정교하게 도와준다. 진일보하여 한국 사회와 서구 사회를 비교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의 토착심리 그 자체에 대한 심도있는 규명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시도들(박영신, 김의철, 2004a, 2004b)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토착심리에 대한 이해(Kim & Park, 2004)의 중요성은, 한국 내에서 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임을 Kim, Yang & Hwang(2006)의 최근 작업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한국 사람들의 행복이나 삶의 질에 대한 이해를 위해 문화 변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Diener & Suh, 2000)을 시사해 준다.

이 연구에서 탐색하려는 연구문제들

Inglehart(1997)가 1920년대 출생자들에서부터 1970년대 출생자들을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탈물질주의의 가치를 나타내었지만 특별히 한국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장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달리 말하면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 집단간에 근대화로부터 탈현대화되는 가치의 차이가 매우 현저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 사회 내

에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이러한 탈물질주의 경향은, 생존을 위한 경제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추구하고, 권위를 강조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탈현대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Inglehart는 설명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급격하게 탈현대주의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Inglehart(1997)의 설명은, 2006년 현재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예측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의 주된 관심은 최근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급격한 관심을 끌고 있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심리학적 시각에서 정리하는데 있다. 즉 하나의 집단으로서 공유된 경험을 가진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각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이거나 낮추는 요소를 무엇으로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합의된 심리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데 있다. 이러한 관심을 연구의 목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한국의 초 중 고 대학생들과 그들의 부모 및 교사들이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삶의 질 인식에 함축되어 있는 한국 사람의 토착심리를 탐구하는데 있다. 나아가서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과 연령, 가정의 경제수준 및 성취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인들이 삶의 질 수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김의철과 박영신(2004b)은 한국 사람 삶의 질 인식을 토착심리학적 시각에서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분석의 초점이 개인생활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삶의 질에 대한 인식에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집중되었는데, 한국 사람의 삶의 질 인식의 토착심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불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대별 분석을 청소년과 성인만이 아니라, 청소년 세대집단 내에서도 초등학교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학교급별로 다양한 연령집단들이 삶의 질 인식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인집단도 학생들의 가정 환경을 구축해 주고 있는 부모집단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집단들 사이의 삶의 질 인식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화과정에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가치 일관성에 대한 검토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 세대별 성별 성취 수준별 삶의 질 수준에서의 차이에 대한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외에도 연령 가정의 경제수준 등의 변인들을 함께 포함하여 이러한 배경정보에 해당하는 변인들과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검토하고, 나아가서 이러한 변인들이 삶의 질 수준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김의철과 박영신(2004b)의 연구에서 후속연구의 과제로 제안했던 내용들을 보다 심도있게 다루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개인 차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삶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분석한다. 둘째,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더불어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삶의 질 인식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셋째, 청소년은 초 중 인문고 실업고 대학생으로 분류하고, 성인은 부모와 교사로 분류하여, 이들

각 하위집단의 삶의 질 인식에서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지각과 연령, 가정의 경제수준 및 성취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인들이 삶의 질 수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방 법

분석대상

이 연구를 위한 분석대상은 총 3,406명이었다(학생-1,331명, 성인-2,075명). 학생은 초 중 인문고 실업고와 대학생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각 집단별로 300명 내외로 구성되었다. 성인은 표집대상 학생들의 부와 모 그리고 교사로 구성되었다. 성별로는 전체적으로 남자가 1,680명, 여자가 1,726 명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분석대상의 하위집단별 자세한 분포는 표 1에 기록되어 있다.

분석대상의 평균 연령은 학생이 17세(초-12.86세, 중-14.34세, 고-17.61세, 대-23.08세), 성인이 43세(부모-43.95세, 교사-37.96세)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해 학생은 ‘매우 낮다’(2.0%) ‘비교적 낮다’(13.8%) ‘보통이다’(61.5%) ‘비교적 높다’(19.5%) ‘매우 높다’(2.5%) ‘무응

답’(2.5%)의 분포를 보였고, 성인은 ‘매우 낮다’(3.4%) ‘비교적 낮다’(14.2%) ‘보통이다’(64.6%) ‘비교적 높다’(15.7%) ‘매우 높다’(0.8%) ‘무응답’(1.3%)으로 나타남으로써 전반적으로 정상분포를 나타내었다. 학생의 경우 본인이 지각한 학업성취 수준은, 상(11.1%) 중상(34.9%) 중(31.7%) 중하(18.1%) 하(4.2%)로 나타났으며, 성인의 현재 직업성취도는 상(6.7%) 중상(34.0%) 중(45.4%) 중하(11.7%) 하(2.4%) 였다. 성인 중에서 교사의 평균 교직경력은 13년이었으며, 초(32.4%) 중(36.2%) 고(31.4%) 교사가 고루 분포했다.

측정도구

질문지는 김의철과 박영신(2004b)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하였다. 학생용 부모용 교사용 질문지로 구성되었는데, 표집대상별로 배경정보에 대한 질문만 차이가 있고, 각 질문지에서 다루고 있는 변인과 문항은 동일했다. 질문지의 내용은 자유응답형식으로, 한국 사회와 개인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 및 종합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를 응답자들이 직접 기록했다. 그리고 각 생활 영역에 대해 삶의 질 수준을 7점 척도에서 응답하도록 했다(문항 예:

표 1. 분석대상

성별	전체	학생						성인					
		초	중	인문고	실업고	대	계	초등 부모	중등 부모	인문 부모	실고 부모	교사	계
남자	1,680	118	189	101	144	138	690	234	214	220	195	127	990
여자	1,726	118	123	126	112	162	641	236	256	219	208	166	1,085
계	3,406	236	312	227	256	300	1,331	470	470	439	403	293	2,075

현재 당신의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해당 숫자를 쓰세요. 답지 예: 1 매우 낮다, 3 약간 낮다, 5 약간 높다, 7 매우 높다). 배경정보는 학생 경우에 연령 성별 학교급별 학업성취도 경제수준 생활만족도를, 성인은 연령 성별 직업성취도 경제수준 생활만족도를 포함했다.

실시 및 분석 방법

이 연구를 위한 자료의 표집은 2004년 4월에서 6월까지 세 달에 걸쳐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자료는 수업시간에 교사의 지도 아래 실시되었으며, 부모용 질문지는 표집 대상 학생들이 집에서 실시한 질문지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수거하였다. 질문지 실시에 약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부모용 질문지 회수 과정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질문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선물도 함께 제공하였다. 교사 표집을 위해서는 초 중 고 교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지를 실시했다.

회수된 모든 자료에 대해 응답의 성실성을 검토하여, 성실성이 의심되는 질문지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의 자료를 기초로, 자유반응 문항들의 경우는 동질적인 반응들을 대표하는 항목을 설정하고, 유사한 항목들을 묶어 범주를 구성하였다. 모든 항목과 범주에 양적인 값을 부여하여 분석틀을 제작하고, 분석틀에 입각하여 모든 자유반응문항들을 양적인 값으로 입력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양적인 응답 및 여러 배경변인들에 대한 응답은 답지에 기록된 값들을 그대로 입력하여, 상관관계분석과 중다회귀분석(stepwise 방식)을 하였다.

결 과

한국 사회 삶의 질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해 분석한 결과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표 2를 보면, 학생과 성인의 반응패턴이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즉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대표적인 범주로 '경제적 요인'이 30% 이상의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두 번째로는 '국민들의 노력'이 25% 이상으로 부각되었으며, 세 번째로는 '문화/여가생활'이 10% 이상의 반응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원만한 인간관계'가 지적되었고, 이외에 '올바른 정책' '교육수준' '민족적 자부심'이 포함되었다. 단 학생집단 내에서 중학생에서만 '경제적 요인'과 '국민들의 노력'의 우선 순위가 적은 차이로 바뀐 점을 제외하고는, 학생과 성인의 모든 하위집단에서 '경제적 요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를 분석한 표 3을 보면, 전반적인 반응이 유사하다. 그러나 학생들은 '정치 불안'(23.8%)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비록 비슷한 비율이나 그 다음으로 '경제 불안'(21.6%)을 지적한 반면에, 성인들은 '경제 불안'(30.4%)에 대한 반응이 현저하게 많고, 그 다음을 '정치 불안'(18.8%)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범주 외에, '시민의식 결여' '집단 이기주의' '부정부패/비리' '여가생활 부족' '과도한 교육열'과 같은 측면들이 순서대로 나타났다.

표 2와 표 3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은 경제가 안정되고 성장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밀접하

표 2.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¹⁾

한국 사회	집단	전체	학생					성인			
			초등학생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대학생	계	부모	교사	계
1. 경제적 요인		1,002 (32.8)	61 (31.1)	86 (29.0)	68 (31.6)	91 (39.4)	82 (28.7)	388 (31.7)	527 (33.6)	87 (33.7)	614 (33.6)
① 경제		543 (17.8)	18 (9.2)	31 (10.4)	38 (17.7)	51 (22.1)	26 (9.1)	164 (13.4)	307 (19.6)	72 (27.9)	379 (20.8)
② 경제성장		190 (6.2)	10 (5.1)	28 (9.4)	7 (3.3)	17 (7.4)	27 (9.4)	89 (7.3)	89 (5.7)	12 (4.7)	101 (5.5)
③ 높은 기술력		135 (4.4)	28 (14.3)	22 (7.4)	16 (7.4)	16 (6.9)	13 (4.5)	95 (7.8)	40 (2.6)	-	40 (2.2)
④ 경제안정		109 (3.6)	4 (2.0)	3 (1.0)	7 (3.3)	5 (2.2)	15 (5.2)	34 (2.8)	75 (4.8)	-	75 (4.1)
⑤ 고용확대		25 (.8)	1 (.5)	2 (.7)	-	2 (.9)	1 (.3)	6 (.5)	16 (1.0)	3 (1.2)	19 (1.0)
2. 국민들의 노력		795 (26.1)	36 (18.4)	103 (34.7)	61 (28.4)	39 (25.5)	64 (22.4)	323 (26.4)	399 (25.4)	73 (28.3)	472 (25.8)
① 국민들의 근면노력		253 (8.3)	7 (3.6)	30 (10.1)	11 (5.1)	12 (5.2)	20 (7.0)	80 (6.5)	149 (9.5)	24 (9.3)	173 (9.5)
② 국민의식 향상		183 (6.0)	8 (4.1)	15 (5.1)	11 (5.1)	12 (5.2)	21 (7.3)	67 (5.5)	105 (6.7)	11 (4.3)	116 (6.4)
③ 단결력		182 (6.0)	12 (6.1)	31 (10.4)	15 (7.0)	18 (7.8)	4 (1.4)	80 (6.5)	72 (4.6)	30 (11.6)	102 (5.6)
④ 예절·시민 의식 확립		177 (5.8)	9 (4.6)	27 (9.1)	24 (11.2)	17 (7.4)	19 (6.6)	96 (7.8)	73 (4.7)	8 (3.1)	81 (4.4)
3. 문화·여가생활		399 (13.1)	29 (14.8)	33 (11.1)	29 (13.5)	9 (3.9)	54 (18.9)	154 (12.6)	193 (12.3)	52 (20.2)	245 (13.4)
① 문화생활		138 (4.5)	14 (7.1)	18 (6.1)	12 (5.6)	3 (1.3)	22 (7.7)	69 (5.6)	52 (3.3)	17 (6.6)	69 (3.8)
② 여가생활		124 (4.1)	6 (3.1)	8 (2.7)	9 (4.2)	3 (1.3)	11 (3.8)	37 (3.0)	71 (4.5)	16 (6.2)	87 (4.8)
③ 사회복지		122 (4.0)	9 (4.6)	7 (2.4)	8 (3.7)	1 (.4)	17 (5.9)	42 (3.4)	61 (3.9)	19 (7.4)	80 (4.4)
④ 언론		15 (.5)	-	-	-	2 (.9)	4 (1.4)	6 (.5)	9 (.6)	-	9 (.5)
4. 원만한 인간관계		301 (9.9)	21 (10.7)	36 (12.1)	33 (15.3)	8 (3.5)	38 (13.3)	136 (11.1)	141 (9.0)	24 (9.3)	165 (9.0)
① 인간관계		85 (2.8)	6 (3.1)	19 (6.4)	14 (6.5)	1 (.4)	9 (3.1)	49 (4.0)	36 (2.3)	-	36 (2.0)
② 정		67 (2.2)	1 (.5)	2 (.7)	7 (3.3)	5 (2.2)	15 (5.2)	30 (2.4)	30 (1.9)	7 (2.7)	37 (2.0)
③ 이타심		65 (2.1)	5 (2.6)	9 (3.0)	7 (3.3)	1 (.4)	7 (2.4)	29 (2.4)	32 (2.0)	4 (1.6)	36 (2.0)
④ 단란한 가정		45 (1.5)	6 (3.1)	4 (1.3)	-	1 (.4)	4 (1.4)	15 (1.2)	20 (1.3)	10 (3.9)	30 (1.6)
⑤ 상호신뢰		39 (1.3)	3 (1.5)	2 (.7)	5 (2.3)	-	3 (1.0)	13 (1.1)	23 (1.5)	3 (1.2)	26 (1.4)
5. 올바른 정책		177 (5.8)	25 (12.8)	10 (3.4)	6 (2.8)	14 (6.1)	9 (3.1)	64 (5.2)	107 (6.8)	6 (2.3)	113 (6.2)
① 올바른 정책		127 (4.2)	20 (10.2)	6 (2.0)	4 (1.9)	9 (3.9)	4 (1.4)	43 (3.5)	78 (5.0)	6 (2.3)	84 (4.6)
② 정치적 안정		50 (1.6)	5 (2.6)	4 (1.3)	2 (.9)	5 (2.2)	5 (1.7)	21 (1.7)	29 (1.8)	-	29 (1.6)
6. 교육수준		176 (5.8)	13 (6.6)	16 (5.4)	6 (2.8)	13 (5.6)	17 (5.9)	65 (5.3)	100 (6.4)	11 (4.3)	111 (6.1)
① 교육		117 (3.8)	7 (3.6)	13 (4.4)	4 (1.9)	4 (1.7)	12 (4.2)	40 (3.3)	66 (4.2)	11 (4.3)	77 (4.2)
② 학력수준		30 (1.0)	5 (2.6)	1 (.3)	2 (.9)	5 (2.2)	3 (1.0)	16 (1.3)	14 (.9)	-	14 (.8)
③ 학구열		29 (1.0)	1 (.5)	2 (.7)	-	4 (1.7)	2 (.7)	9 (.7)	20 (1.3)	-	20 (1.1)
7. 민족적 자부심		83 (2.7)	2 (1.0)	2 (.7)	7 (3.3)	17 (7.4)	17 (5.9)	45 (3.7)	38 (2.4)	-	38 (2.1)
① 애국심		50 (1.6)	1 (.5)	1 (.3)	2 (.9)	15 (6.5)	5 (1.7)	24 (2.0)	36 (1.7)	-	36 (1.4)
② 주체성 확립		33 (1.1)	1 (.5)	1 (.3)	5 (2.3)	2 (.9)	12 (4.2)	21 (1.7)	12 (.8)	-	12 (.7)
8. 기타		118 (3.9)	9 (4.6)	11 (3.7)	5 (2.3)	20 (8.7)	5 (1.7)	50 (4.1)	63 (4.0)	5 (1.9)	68 (3.7)
① 환경		60 (2.0)	3 (1.5)	8 (2.7)	2 (.9)	11 (4.8)	-	24 (2.0)	36 (2.3)	-	36 (2.0)
② 없다		36 (1.2)	3 (1.5)	3 (1.0)	2 (.9)	-	5 (1.7)	13 (1.1)	18 (1.1)	5 (1.9)	23 (1.3)
③ 기타		22 (.7)	3 (1.5)	-	1 (.5)	9 (3.9)	-	13 (1.1)	9 (.6)	-	9 (.5)
계		3,051 (100.0)	196 (100)	297 (100)	215 (100)	231 (100)	286 (100)	1,225 (100)	1,568 (100)	258 (100)	1,826 (100)

1) 표 2에서 표 13까지 ()안은 모두 %를 의미함.

표 3.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

한국 사회	집단	전체	학생						성인		
			초등학생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대학생	계	부모	교사	계
1. 경제 불안		828 (26.8)	35 (17.4)	40 (13.7)	44 (20.2)	78 (32.8)	68 (24.3)	265 (21.6)	473 (29.7)	90 (34.1)	563 (30.4)
① 경제력		400 (13.0)	12 (6.0)	15 (5.1)	13 (6.0)	43 (18.1)	27 (9.6)	110 (9.0)	244 (15.3)	46 (17.4)	290 (15.6)
② 빈부격차		172 (5.6)	9 (4.5)	4 (1.4)	12 (5.5)	1 (.8)	17 (6.1)	44 (3.6)	110 (6.9)	18 (6.8)	128 (6.9)
③ 돈		168 (5.4)	9 (4.5)	13 (4.5)	15 (6.9)	25 (10.5)	15 (5.4)	77 (6.3)	76 (4.8)	15 (5.7)	91 (4.9)
④ 실업률 증가		52 (1.7)	4 (2.0)	4 (1.4)	3 (1.4)	3 (2.1)	4 (1.4)	20 (1.6)	28 (1.8)	4 (1.5)	32 (1.7)
⑤ 물질만능주의		36 (1.2)	1 (.5)	4 (1.4)	1 (.5)	3 (1.3)	3 (1.8)	14 (1.1)	15 (.9)	7 (2.7)	22 (1.2)
2. 정치 불안		640 (20.8)	65 (32.3)	66 (22.6)	52 (23.9)	56 (23.5)	53 (18.9)	292 (23.8)	317 (19.9)	31 (11.7)	348 (18.8)
① 정치 불안		364 (11.8)	33 (16.4)	32 (11.0)	29 (13.3)	23 (9.7)	35 (12.5)	152 (12.4)	191 (12.0)	21 (8.0)	212 (11.4)
② 잘못된 정책		154 (5.0)	20 (10.0)	23 (7.9)	11 (5.0)	30 (12.6)	8 (2.9)	92 (7.5)	56 (3.5)	6 (2.3)	62 (3.3)
③ 정치인		93 (3.0)	5 (2.5)	11 (3.8)	8 (3.7)	3 (1.3)	8 (2.9)	35 (2.8)	54 (3.4)	4 (1.5)	58 (3.1)
④ 국제관계		29 (.9)	7 (3.5)	-	4 (1.8)	-	1 (.7)	13 (1.1)	16 (1.0)	-	16 (.9)
3. 시민의식결여		431 (14.0)	29 (14.4)	69 (23.6)	34 (15.6)	19 (8.0)	49 (17.5)	200 (16.3)	197 (12.4)	34 (12.9)	231 (12.5)
① 시민의식 결여		120 (3.9)	5 (2.5)	16 (5.5)	13 (6.0)	3 (1.3)	15 (5.4)	52 (4.2)	57 (3.6)	11 (4.2)	68 (3.7)
② 나쁜 사고방식		152 (4.9)	4 (2.0)	13 (4.5)	6 (2.8)	14 (5.9)	19 (6.8)	56 (4.6)	78 (4.9)	18 (6.8)	96 (5.2)
③ 무절서		70 (2.3)	6 (3.0)	22 (7.5)	8 (3.7)	1 (.4)	8 (2.9)	45 (3.7)	25 (1.6)	-	25 (1.3)
④ 절서의식 결여		54 (1.8)	10 (5.0)	11 (3.8)	5 (2.3)	-	3 (1.1)	29 (2.4)	20 (1.3)	5 (1.9)	25 (1.3)
⑤ 불평등		35 (1.1)	4 (2.0)	7 (2.4)	2 (.9)	1 (.4)	4 (1.4)	18 (1.5)	17 (1.1)	-	17 (.9)
4. 집단 이기주의		366 (11.9)	15 (7.5)	36 (12.3)	33 (15.1)	24 (10.1)	32 (11.4)	140 (11.4)	204 (12.8)	22 (8.3)	226 (12.2)
① 이기주의		312 (10.1)	12 (6.0)	36 (12.3)	28 (12.8)	21 (8.8)	17 (6.1)	114 (9.3)	181 (11.4)	17 (6.4)	198 (10.7)
② 지역연고주의		54 (1.8)	3 (1.5)	-	5 (2.3)	3 (1.3)	15 (5.4)	26 (2.1)	23 (1.4)	5 (1.9)	28 (1.5)
5. 부정부패 비리		297 (9.6)	17 (8.5)	28 (9.6)	21 (9.6)	23 (9.7)	31 (11.1)	120 (9.8)	158 (9.9)	19 (7.2)	177 (9.5)
① 부정부패 비리		183 (5.9)	3 (1.5)	19 (6.5)	11 (5.0)	16 (6.7)	25 (8.9)	74 (6.0)	101 (6.3)	8 (3.0)	109 (5.9)
② 부도덕		83 (2.7)	14 (7.0)	7 (2.4)	8 (3.7)	7 (2.9)	6 (2.1)	42 (3.4)	32 (2.0)	9 (3.4)	41 (2.2)
③ 불신		31 (1.0)	-	2 (.7)	2 (.9)	-	-	4 (.3)	25 (1.6)	2 (.8)	27 (1.5)
6. 여가생활 부족		169 (5.5)	13 (6.5)	6 (2.1)	7 (3.2)	7 (2.9)	25 (8.9)	38 (4.7)	73 (4.6)	38 (14.4)	111 (6.0)
① 여가생활 부족		81 (2.6)	4 (2.0)	2 (.7)	4 (1.8)	1 (.4)	11 (3.9)	22 (1.8)	34 (2.1)	25 (9.5)	59 (3.2)
② 향락문화		39 (1.3)	2 (1.0)	3 (1.0)	-	-	6 (2.1)	11 (.9)	15 (.9)	13 (4.9)	28 (1.5)
③ 문화생활 부족		37 (1.2)	6 (3.0)	1 (.3)	3 (1.4)	1 (.8)	6 (2.1)	18 (1.5)	19 (1.2)	-	19 (1.0)
④ 대중매체영향		12 (.4)	1 (.5)	-	-	4 (1.7)	2 (.7)	7 (.6)	5 (.3)	-	5 (.3)
7. 과도한 교육열		162 (5.3)	19 (9.5)	6 (2.1)	23 (10.6)	7 (2.9)	17 (6.1)	72 (5.9)	75 (4.7)	15 (5.7)	90 (4.9)
① 과도한 교육열		113 (3.7)	14 (7.0)	6 (2.1)	22 (10.1)	7 (2.9)	12 (4.3)	61 (5.0)	48 (3.0)	4 (1.5)	52 (2.8)
② 지나친 경쟁의식		49 (1.6)	5 (2.5)	-	1 (.5)	-	3 (1.8)	11 (.9)	27 (1.7)	11 (4.2)	38 (2.0)
8. 기타		191 (6.2)	8 (4.0)	41 (14.0)	4 (1.8)	24 (10.1)	3 (1.8)	82 (6.7)	94 (5.9)	15 (5.7)	109 (5.9)
① 환경		91 (3.0)	-	24 (8.2)	-	9 (3.8)	-	33 (2.7)	51 (3.2)	7 (2.7)	58 (3.1)
② 취업 시위		57 (1.8)	5 (2.5)	12 (4.1)	4 (1.8)	1 (3.4)	3 (1.8)	34 (2.8)	15 (.9)	8 (3.0)	23 (1.2)
③ 기타		43 (1.4)	3 (1.5)	3 (1.7)	-	7 (2.9)	-	15 (1.2)	28 (1.8)	-	28 (1.5)
계		3,084 (100)	201 (100)	292 (100)	218 (100)	238 (100)	280 (100)	1,229 (100)	1,591 (100)	264 (100)	1,855 (100)

게 관련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들이 학생들보다 더욱 경제적 측면이 한국 사회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각하였다. 학생들도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요인이 한국 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지만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 정치적인 안정의 중요성을 성인들보다 더욱 중요하게 인식했다. 한국 사회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서 ‘부정부패/비리’가 중요한 범주로 포함됨으로써, 단순히 정치적인 불안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부정부패나 불신이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국민들의 노력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부각된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노력이나 의지력과 같은 자기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을 개인의 삶에서 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라는 집단에 대한 인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재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한국 사회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서 ‘원만한 인간관계’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원만한 인간관계 범주 속에는 인간관계, 정, 이타심, 단란한 가정, 상호신뢰와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반응 항목들이 의미하는 바는 결과적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함축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성공적인 관계를 이룩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하게 되는 결과는 한국 사회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높은 교육열’ 범주가 지적되었고 여기에 높은 교육열이라든가 학력수준 등이 포함되었는데, 다른 한편으로 한국 사회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도 역

시 ‘과도한 교육열’ 범주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높은 교육열과 이로 인한 높은 학력이 동전의 양면처럼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경쟁과 같이 그것의 부작용이 한국 사회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으로 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지각을 분석한 결과가 표 4와 표 5에 지시되어 있다. 표 4를 보면, 학생과 성인이 유사한 반응패턴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과 성인 모두 화목한 가족관계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여유’였으며, ‘여가생활’이 세 번째로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학생은 학업에 충실을 기하는 등의 ‘자기조절’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건강’을 지적하였으나, 성인은 ‘건강’ 다음으로 비슷한 비율로 ‘자기조절’을 지적하였다. 학생의 경우는 과반수(54.2%)가 ‘화목한 가족관계’를 지적하였는데, 초·중·고 대학생 모두 ‘화목한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성인의 경우는 ‘화목한 가족관계’와 거의 비슷하게 ‘경제적 여유’를 각각 30% 이상 높은 반응율을 보였는데, 하위집단별로 볼 때 부모집단에서는 화목한 가족관계를 조금 더 많이 지적했고, 교사 집단은 오히려 ‘경제적 여유’를 더 많이 지적하는 차이가 있었다. 학생의 하위집단별로 보면, 초·중·고 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점차 성장함에 따라 ‘경제적 여유’에 대한 반응율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5에서 가정생활 삶의 질을 낮추는

표 4.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

가정생활	집단	전체	학생						성인		
			초등학생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대학생	계	부모	교사	계
1. 화목한 가족관계		1,411 (42.4)	131 (57.7)	195 (63.7)	135 (62.5)	116 (46.2)	132 (44.6)	709 (54.2)	631 (36.3)	71 (25.1)	702 (34.6)
① 가정의 화목		452 (13.6)	35 (15.2)	63 (20.6)	41 (18.4)	50 (19.9)	34 (11.5)	223 (17.1)	194 (11.1)	35 (12.4)	229 (11.3)
② 원만한 가족관계		264 (7.9)	37 (16.0)	37 (12.1)	26 (11.6)	16 (6.2)	29 (9.8)	145 (11.1)	106 (6.1)	14 (5.0)	119 (5.9)
③ 가족간의 사랑배려이해		237 (7.2)	18 (7.8)	35 (11.4)	21 (9.4)	17 (6.8)	22 (7.4)	117 (8.9)	104 (6.0)	16 (5.6)	120 (5.9)
④ 가족간의 대화		222 (6.7)	20 (8.7)	21 (6.9)	18 (10.7)	18 (7.2)	18 (6.1)	113 (8.6)	104 (6.0)	5 (1.8)	109 (5.4)
⑤ 가족의 행복		113 (3.4)	15 (6.5)	25 (8.2)	16 (7.2)	10 (4.0)	12 (4.1)	78 (6.0)	35 (2.0)	-	35 (1.7)
⑥ 가족간의 믿음		66 (2.0)	1 (.4)	5 (1.6)	3 (1.3)	5 (2.0)	9 (3.0)	23 (1.8)	41 (2.4)	2 (.7)	43 (2.1)
⑦ 자녀 양육/교육		57 (1.7)	3 (1.3)	-	3 (1.3)	-	4 (1.4)	10 (.8)	47 (2.7)	-	47 (2.3)
2. 경제적 여유		909 (27.3)	13 (5.6)	24 (7.8)	45 (20.2)	67 (26.7)	88 (29.7)	237 (18.1)	582 (33.4)	90 (31.9)	672 (33.2)
① 돈		377 (11.3)	8 (3.5)	18 (5.9)	37 (16.6)	59 (23.5)	61 (20.6)	183 (14.0)	194 (11.1)	-	194 (9.6)
② 경제		361 (10.8)	4 (1.7)	4 (1.3)	4 (1.8)	2 (.8)	9 (3.0)	23 (1.8)	282 (16.2)	56 (19.9)	338 (16.7)
③ 경제적 여유		114 (3.4)	-	2 (.7)	3 (1.3)	5 (2.0)	12 (4.1)	22 (1.7)	58 (3.3)	34 (12.1)	92 (4.5)
④ 수입		57 (1.7)	1 (.4)	-	1 (.4)	1 (.4)	6 (2.0)	9 (.7)	48 (2.8)	-	48 (2.4)
3. 여가생활		485 (14.6)	43 (18.6)	20 (6.5)	22 (9.9)	20 (8.0)	41 (13.9)	146 (11.2)	243 (13.9)	96 (34.0)	339 (16.7)
① 여가생활		165 (4.9)	13 (5.6)	3 (1.0)	11 (4.9)	2 (.8)	17 (5.7)	46 (3.5)	83 (4.8)	34 (12.1)	117 (5.8)
② 문화생활		107 (3.2)	8 (3.5)	11 (3.6)	3 (1.3)	3 (1.2)	7 (2.4)	32 (2.4)	52 (3.0)	23 (8.2)	75 (3.7)
③ 여유 있는 시간		101 (3.0)	6 (2.6)	2 (.7)	4 (1.8)	4 (1.6)	8 (2.7)	24 (1.8)	55 (3.2)	22 (7.8)	77 (3.8)
④ 취미생활		70 (2.1)	8 (3.5)	1 (.3)	4 (1.8)	5 (2.0)	6 (2.0)	24 (1.8)	29 (1.7)	17 (6.0)	46 (2.3)
⑤ 운동		44 (1.3)	8 (3.5)	3 (1.0)	-	6 (2.4)	3 (1.0)	20 (1.5)	24 (1.4)	-	24 (1.2)
4. 자기조절		248 (7.4)	35 (15.2)	41 (13.4)	11 (4.9)	28 (11.2)	21 (7.1)	136 (10.4)	112 (6.4)	-	112 (5.5)
① 학업 충실		88 (2.6)	29 (12.6)	23 (7.5)	4 (1.8)	19 (7.6)	3 (1.0)	78 (6.0)	10 (.6)	-	10 (.5)
② 긍정적인 생활태도		66 (2.0)	4 (1.7)	9 (2.9)	7 (3.1)	5 (2.0)	8 (2.7)	33 (2.5)	33 (1.9)	-	33 (1.6)
③ 성실		39 (1.2)	-	5 (1.6)	-	4 (1.6)	4 (1.4)	13 (1.0)	26 (1.5)	-	26 (1.3)
④ 직장생활 충실		37 (1.1)	1 (.4)	-	-	-	1 (.3)	2 (.2)	35 (2.0)	-	35 (1.7)
⑤ 노력		18 (.5)	1 (.4)	4 (1.3)	-	-	5 (1.7)	10 (.8)	8 (.5)	-	8 (.4)
5. 건강		161 (4.8)	7 (3.0)	13 (4.2)	7 (3.1)	7 (2.8)	8 (2.7)	42 (3.2)	102 (5.9)	17 (6.0)	119 (5.9)
① 건강		116 (3.5)	3 (1.3)	12 (3.9)	7 (3.1)	6 (2.4)	7 (2.4)	35 (2.7)	64 (3.7)	17 (6.0)	81 (4.0)
② 가족의 건강		45 (1.4)	4 (1.7)	1 (.3)	-	1 (.4)	1 (.3)	7 (.5)	38 (2.2)	-	38 (1.9)
6. 기타		117 (3.5)	2 (.9)	13 (4.2)	3 (1.3)	13 (5.2)	6 (2.0)	37 (2.8)	72 (4.1)	8 (2.8)	80 (4.0)
① 없다		60 (1.8)	1 (.4)	2 (.7)	3 (1.3)	-	2 (.7)	8 (.6)	49 (2.8)	3 (1.1)	52 (2.6)
② 종교생활		43 (1.3)	1 (.4)	11 (3.6)	-	8 (3.2)	2 (.7)	22 (1.7)	16 (.9)	5 (1.8)	21 (1.0)
③ 기타		14 (.4)	-	-	-	5 (2.0)	2 (.7)	7 (.5)	7 (.4)	-	7 (.3)
계		3,331 (100)	231 (100)	306 (100)	223 (100)	251 (100)	296 (100)	1,307 (100)	1,742 (100)	282 (100)	2,024 (100)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의 결과를 보면, 학생과 성인 간에 차이가 있었다. 학생은 가족간의 갈등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경제 문제'가 두 번째

로 많이 지적되었으며, 이 외에 '여가생활 문제' '자기조절 결여' '교육 문제' '건강 문제'와 같은 범주들이 드러났다. 그런데 성인의 경우는 '경제문제'(44.3%)가 반수에 가까운 비

표 5.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

가정생활	집단	전체	학생						성인		
			초등학생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대학생	계	부모	교사	계
1. 경제 문제		1,187 (37.5)	23 (10.7)	27 (8.9)	63 (29.2)	83 (35.2)	146 (50.3)	342 (27.2)	723 (44.0)	122 (46.0)	845 (44.3)
① 돈		572 (18.1)	14 (6.5)	21 (6.9)	45 (20.8)	63 (26.7)	89 (30.7)	232 (18.4)	290 (17.7)	50 (18.9)	340 (17.8)
② 경제 문제		476 (15.0)	5 (2.3)	5 (1.7)	17 (7.9)	11 (4.7)	31 (10.7)	69 (5.5)	335 (20.4)	72 (27.2)	407 (21.3)
③ 사회 환경		70 (2.2)	1 (.5)	-	1 (.5)	9 (3.8)	14 (4.8)	25 (2.0)	45 (2.7)	-	45 (2.4)
④ 소득수준		35 (1.1)	3 (1.4)	-	-	-	7 (2.4)	10 (.8)	25 (1.5)	-	25 (1.3)
⑤ 물가 불안정기침체		34 (1.1)	-	1 (.3)	-	-	5 (1.7)	6 (.5)	28 (1.7)	-	28 (1.5)
2. 가족간의 갈등		820 (25.9)	88 (41.1)	116 (38.3)	84 (38.9)	69 (29.2)	62 (21.4)	419 (33.3)	365 (22.2)	36 (13.6)	401 (21.0)
① 가족간의 불화		406 (12.8)	53 (24.8)	75 (24.8)	49 (22.7)	38 (16.1)	25 (8.6)	240 (19.1)	157 (9.6)	9 (3.4)	166 (8.7)
② 가족간의 대화 부족		123 (3.9)	3 (1.4)	11 (3.6)	8 (3.7)	12 (5.1)	5 (1.7)	39 (3.1)	72 (4.4)	12 (4.5)	84 (4.4)
③ 가족과의 시간 부족		111 (3.5)	8 (3.7)	6 (2.0)	13 (6.0)	2 (.8)	7 (2.4)	36 (2.9)	75 (4.6)	-	75 (3.9)
④ 가족간의 불신		79 (2.5)	6 (2.8)	6 (2.0)	3 (1.4)	10 (4.2)	13 (5.2)	40 (3.2)	37 (2.3)	2 (.8)	39 (2.0)
⑤ 세대차이		67 (2.1)	18 (8.4)	18 (5.9)	9 (4.2)	7 (3.0)	9 (3.1)	61 (4.8)	6 (.4)	-	6 (.3)
⑥ 자녀문제		34 (1.1)	-	-	2 (.9)	-	1 (.3)	3 (.2)	18 (1.1)	13 (4.9)	31 (1.6)
3. 여가생활 문제		373 (11.8)	34 (15.9)	44 (14.5)	12 (5.6)	15 (6.4)	23 (7.9)	128 (10.2)	172 (10.5)	73 (27.5)	245 (12.8)
① 여가생활 부족		125 (3.9)	2 (.9)	8 (2.6)	1 (.5)	1 (.4)	8 (2.8)	20 (1.6)	69 (4.2)	36 (13.6)	105 (5.5)
② 문화생활 부족		79 (2.5)	19 (8.9)	23 (7.6)	6 (2.8)	10 (4.2)	9 (3.1)	67 (5.3)	12 (.7)	-	12 (.6)
③ 여유시간 부족		74 (2.3)	6 (2.8)	1 (.3)	1 (.5)	2 (.8)	-	10 (.8)	49 (3.0)	15 (5.7)	64 (3.4)
④ 과중한 업무		63 (2.0)	2 (.9)	10 (3.3)	4 (1.9)	-	5 (1.7)	21 (1.7)	24 (1.5)	18 (6.8)	42 (2.2)
⑤ 컴퓨터/TV 과다		32 (1.0)	5 (2.3)	2 (.7)	-	2 (.8)	1 (.3)	10 (.8)	18 (1.1)	4 (1.5)	22 (1.2)
4. 자기조절 결여		229 (7.2)	17 (7.9)	34 (11.2)	25 (11.6)	20 (8.5)	21 (7.2)	117 (9.3)	106 (6.5)	6 (2.3)	112 (5.9)
① 이해심 부족		138 (4.4)	12 (5.6)	23 (7.6)	18 (8.3)	13 (5.5)	9 (3.1)	75 (6.0)	63 (3.8)	-	63 (3.3)
② 노력 부족		47 (1.5)	4 (1.9)	2 (.7)	3 (1.4)	4 (1.7)	4 (1.4)	17 (1.4)	30 (1.8)	-	30 (1.6)
③ 인내 부족		23 (.7)	-	5 (1.7)	1 (.5)	1 (.4)	6 (2.1)	13 (1.0)	4 (.2)	6 (2.3)	10 (.5)
④ 책임감 부족		21 (.7)	1 (.5)	4 (1.3)	3 (1.4)	2 (.8)	2 (.7)	12 (1.0)	9 (.5)	-	9 (.5)
5. 건강 문제		228 (7.2)	9 (4.2)	26 (8.6)	9 (4.2)	12 (5.1)	14 (4.8)	70 (5.6)	139 (8.5)	19 (7.2)	158 (8.3)
① 건강 문제		135 (4.3)	6 (2.8)	8 (2.6)	4 (1.9)	8 (3.4)	9 (3.1)	35 (2.8)	86 (5.2)	14 (5.3)	100 (5.2)
② 술 담배		43 (1.4)	2 (.9)	8 (2.6)	5 (2.3)	2 (.8)	2 (.7)	19 (1.5)	19 (1.2)	5 (1.9)	24 (1.3)
③ 스트레스		33 (1.0)	-	2 (.7)	-	2 (.8)	3 (1.0)	7 (.6)	26 (1.6)	-	26 (1.4)
④ 운동 부족		17 (.5)	1 (.5)	8 (2.6)	-	-	-	9 (.7)	8 (.5)	-	8 (.4)
6. 교육 문제		177 (5.6)	29 (13.6)	37 (12.2)	21 (9.7)	14 (5.9)	6 (2.1)	107 (8.5)	70 (4.3)	-	70 (3.7)
① 교육 문제		117 (3.7)	23 (10.7)	32 (10.6)	20 (9.3)	13 (5.5)	6 (2.1)	94 (7.5)	23 (1.4)	-	23 (1.2)
② 사교육		60 (1.9)	6 (2.8)	5 (1.7)	1 (.5)	1 (.4)	-	13 (1.0)	47 (2.9)	-	47 (2.5)
7. 기타		152 (4.8)	14 (6.5)	19 (6.3)	2 (.9)	23 (9.7)	18 (6.2)	76 (6.0)	67 (4.1)	9 (3.4)	76 (4.0)
① 없다		115 (3.6)	13 (6.1)	16 (5.3)	2 (.9)	18 (7.6)	14 (4.8)	63 (5.0)	52 (3.2)	-	52 (2.7)
② 기타		37 (1.2)	1 (.5)	3 (1.0)	-	5 (2.1)	4 (1.4)	13 (1.0)	15 (.9)	9 (3.4)	24 (1.3)
계		3,166 (100)	214 (100)	303 (100)	216 (100)	236 (100)	290 (100)	1,259 (100)	1,642 (100)	265 (100)	1,907 (100)

움을 보이고, ‘가족간의 갈등’이 두 번째로 많이 지적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여가생활 문제’ ‘건강 문제’ ‘자기조절 결여’ ‘교육 문제’가 순서대로 나타났다. 학생의 하위집단별로 보면, 초 중 인문고 학생들은 ‘가족간의 갈등’을, 실업고와 대학생들은 오히려 ‘경제 문제’를 더 많이 지적하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점차 성장하게 됨에 따라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인집단 내에서는 가정생활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부모나 교사집단 모두 ‘경제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표 4와 표 5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생이나 성인 모두 가정생활의 삶의 질이 가족간의 화목이나 경제적인 여유와 직결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화목한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성인들은 학생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가정생활의 삶의 질에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학생들은 점차 성장함에 따라 경제적인 중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가정의 화목이나 경제적인 여유 외에도, 여가생활이나 자기조절 또한 건강과 같은 요인들이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요인들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은 가정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낮추는 중요한 측면들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

학생 집단만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지각을 분석한 결과가 표 6과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 중 고 대학생 집단 모두 학교생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친구관계’가 가장 중요한 범주로 확인되었으며, 대학생은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50% 이상의 매우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두 번째로는 네 하위집단 모두에서 ‘학업성취’가 중요한 범주로 확인되었는데, 다른 집단에 비해 대학생들에게서 ‘학업성취’가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교육환경’ ‘여가생활’ ‘자기조절’과 같은 범주들이 부각되었다.

성별로는 남녀 학생의 반응패턴에서 전혀 차이가 없었다. 즉 ‘친구관계’가 과반수로 가장 중요한 범주로 일치하였고, 그 다음에 ‘학업성취’가 20% 이상의 비율을 보였으며, 나머지 세 범주들의 반응 순서도 동일하였다.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친구 문제’가 약 40%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학업부담’이 30% 이상을 두 번째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중 고 대학생 집단 모두 ‘학업부담’이 ‘친구 문제’보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특별히 인문고 학생 집단에서는 50% 이상의 매우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그러므로 초등학생들은 친구문제가, 중 고 대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이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을 낮추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인문고 학생들이 이러한 학업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자기조절 결여’ ‘학교 환경’ ‘여가생활 문제’ ‘경제적 요인’ 등이 포함되었다.

표 6과 표 7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친구관계가 좋은 것이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하고 이 외에도 학업성취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학교생활

표 6.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

학교생활 집단	전체	학생					성별	
		초등학생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대학생	남자	여자
1. 친구관계	709 (53.9)	146 (62.4)	196 (63.4)	142 (63.7)	128 (50.4)	97 (32.9)	350 (51.2)	359 (56.8)
① 친구관계	564 (42.9)	133 (56.8)	185 (59.9)	105 (47.1)	105 (41.3)	36 (12.2)	287 (42.0)	277 (43.8)
② 인간관계	66 (4.8)	13 (5.6)	6 (1.9)	3 (2.2)	7 (2.8)	32 (10.8)	30 (4.4)	33 (5.2)
③ 교우관계	59 (4.5)	-	3 (1.6)	32 (14.3)	2 (.8)	20 (6.8)	20 (2.9)	39 (6.2)
④ 선�후배관계	23 (1.7)	-	-	-	14 (5.5)	9 (3.1)	13 (1.9)	10 (1.6)
2. 학업성취	284 (21.6)	39 (16.7)	58 (18.8)	41 (18.4)	70 (27.6)	76 (25.8)	148 (21.7)	136 (21.5)
① 공부	155 (11.8)	27 (11.5)	41 (13.3)	15 (6.7)	46 (18.1)	26 (8.8)	97 (14.2)	58 (9.2)
② 학업 성취	107 (8.1)	11 (4.7)	12 (3.9)	25 (11.2)	21 (8.3)	38 (12.9)	39 (5.7)	68 (10.8)
③ 학구열	22 (1.7)	1 (.4)	3 (1.6)	1 (.4)	3 (1.2)	12 (4.1)	12 (1.8)	10 (1.6)
3. 교육 환경	132 (10.0)	28 (12.0)	34 (11.0)	17 (7.6)	14 (5.5)	39 (13.2)	80 (11.7)	52 (8.2)
① 학교생활	92 (7.0)	20 (8.5)	32 (10.4)	10 (4.5)	8 (3.1)	22 (7.5)	60 (8.8)	32 (5.1)
② 교육환경	40 (3.0)	8 (3.4)	2 (.6)	7 (3.1)	6 (2.4)	17 (5.8)	20 (2.9)	20 (3.2)
4. 여가생활	89 (6.8)	16 (6.8)	7 (2.3)	13 (5.8)	4 (1.6)	49 (16.6)	50 (7.3)	39 (6.2)
① 동아리활동	37 (2.8)	2 (.9)	1 (.3)	4 (1.8)	-	30 (10.2)	13 (1.9)	24 (3.8)
② 취미활동	30 (2.3)	11 (4.7)	4 (1.3)	3 (1.3)	2 (.8)	10 (3.4)	21 (3.1)	9 (1.4)
③ 여가시간	22 (1.7)	3 (1.3)	2 (.6)	6 (2.7)	2 (.8)	9 (3.1)	16 (2.3)	6 (.9)
5. 자기조절	52 (4.0)	3 (2.1)	8 (2.6)	6 (2.7)	13 (5.1)	20 (6.8)	25 (3.7)	27 (4.3)
① 성실	28 (2.1)	3 (2.1)	6 (1.9)	3 (2.2)	10 (3.9)	2 (.7)	16 (2.3)	12 (1.9)
② 자신감	12 (.9)	-	2 (.6)	1 (.4)	-	9 (3.1)	6 (.9)	6 (.9)
③ 의지	12 (.9)	-	-	-	3 (1.2)	9 (3.1)	3 (.4)	9 (1.4)
6. 기타	49 (3.7)	-	6 (1.9)	4 (1.8)	25 (9.8)	14 (4.7)	30 (4.4)	19 (3.0)
① 경제적 요인	30 (2.3)	-	-	4 (1.8)	14 (5.5)	12 (4.1)	17 (2.5)	13 (2.1)
② 없음	10 (.8)	-	2 (.6)	-	7 (2.8)	1 (.3)	8 (1.2)	2 (.3)
③ 기타	9 (.7)	-	4 (1.3)	-	4 (1.6)	1 (.3)	3 (.7)	4 (.6)
계	1,315 (100)	234 (100)	309 (100)	223 (100)	254 (100)	295 (100)	683 (100)	632 (100)

에서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는 중학생 이후는 모두 학업에서의 부담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초등학생은 친구문제를 지적하였다. 따라서 학교생활에서의 삶의 질은 친구관계나 학업성취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그리고 학업 부담 때

문에 학교생활에서의 삶의 질이 낮아진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연령이 다른 하위집단보다 초등학생들이 적었고, 오히려 초등학생들은 친구문제가 학교생활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표 7.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

학교생활	집단	전체	학생					성별	
			초등학생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대학생	남자	여자
1. 학업 부담		497 (38.9)	73 (33.6)	120 (39.2)	123 (56.2)	81 (32.9)	100 (34.7)	251 (37.9)	246 (40.1)
① 공부/공부/시험		334 (26.2)	45 (20.7)	69 (22.5)	88 (40.2)	68 (27.6)	64 (22.2)	151 (22.8)	183 (29.9)
② 수업시간/선생님		93 (7.3)	15 (6.9)	30 (9.8)	14 (6.4)	11 (4.5)	23 (8.0)	52 (7.8)	41 (6.7)
③ 과도한 숙제		46 (3.6)	10 (4.6)	21 (6.9)	2 (0.9)	-	13 (4.5)	29 (4.4)	17 (2.8)
④ 자율/보충학습		16 (1.3)	1 (0.5)	-	14 (6.4)	1 (0.4)	-	11 (1.7)	5 (0.8)
⑤ 진로문제		8 (0.6)	2 (0.9)	-	3 (2.3)	1 (0.4)	-	8 (1.2)	-
2. 친구 문제		295 (23.1)	86 (39.6)	93 (30.4)	32 (14.6)	62 (25.2)	22 (7.6)	160 (24.1)	135 (22.0)
① 친구관계		120 (9.4)	33 (15.2)	24 (7.8)	17 (7.8)	31 (12.6)	15 (5.2)	54 (8.1)	66 (10.8)
② 친구들과거리의 싸움		101 (7.9)	28 (12.9)	54 (17.6)	9 (4.1)	10 (4.1)	-	71 (10.7)	30 (4.9)
③ 왕따		29 (2.3)	19 (8.8)	5 (1.6)	2 (0.9)	3 (1.2)	-	12 (1.8)	17 (2.8)
④ 인간관계		28 (2.2)	1 (0.5)	4 (1.3)	1 (0.5)	15 (6.1)	7 (2.4)	11 (1.7)	17 (2.8)
⑤ 욕		17 (1.3)	5 (2.3)	6 (2.0)	3 (1.4)	3 (1.2)	-	12 (1.8)	5 (0.8)
3. 자기조절 결여		165 (12.9)	25 (11.5)	45 (14.7)	27 (12.3)	35 (14.2)	33 (11.5)	82 (12.4)	83 (13.5)
① 나태함		101 (7.9)	18 (8.3)	32 (10.5)	18 (8.2)	20 (8.1)	13 (4.5)	48 (7.2)	53 (8.6)
② 자기관리		47 (3.7)	5 (2.3)	9 (2.9)	8 (3.7)	12 (4.9)	13 (4.5)	27 (4.1)	20 (3.3)
③ 의지		17 (1.3)	2 (0.9)	4 (1.3)	1 (0.5)	3 (1.2)	7 (2.4)	7 (1.1)	10 (1.6)
4. 학교 환경		102 (8.0)	15 (6.9)	17 (5.6)	17 (7.8)	18 (7.3)	35 (12.2)	46 (6.9)	56 (9.1)
① 학교환경		73 (5.7)	15 (6.9)	6 (2.0)	16 (7.3)	15 (6.1)	21 (7.3)	37 (5.6)	36 (5.9)
② 교통 불편		18 (1.4)	-	10 (3.3)	1 (0.5)	3 (1.2)	4 (1.4)	6 (0.9)	12 (2.0)
③ 학교분위기		11 (0.9)	-	1 (0.3)	-	-	10 (3.5)	3 (0.5)	8 (1.3)
5. 여가생활 문제		74 (5.8)	4 (1.8)	6 (2.0)	9 (4.1)	7 (2.8)	48 (16.7)	33 (5.0)	41 (6.7)
① 술		47 (3.7)	4 (1.8)	6 (2.0)	9 (4.1)	6 (2.4)	22 (7.6)	18 (2.7)	29 (4.7)
② 시간활용		27 (2.1)	-	-	-	1 (0.4)	26 (9.0)	15 (2.3)	12 (2.0)
6. 경제적 요인		56 (4.4)	2 (0.9)	-	9 (4.1)	16 (6.5)	29 (10.1)	36 (5.4)	20 (3.3)
① 금전문제		53 (4.2)	2 (0.9)	-	9 (4.1)	16 (6.5)	26 (9.0)	33 (5.0)	20 (3.3)
② 등록금		3 (0.2)	-	-	-	-	3 (1.0)	3 (0.5)	-
7. 기타		87 (6.8)	12 (5.5)	25 (8.2)	2 (0.9)	27 (11.0)	21 (7.3)	55 (8.3)	32 (5.3)
① 없다		52 (4.1)	9 (4.1)	14 (4.6)	2 (0.9)	21 (8.5)	6 (2.1)	33 (5.0)	19 (3.1)
② 취업		15 (1.2)	-	1 (0.3)	-	-	14 (4.9)	11 (1.7)	4 (0.7)
③ 기타		20 (1.6)	3 (1.4)	10 (3.3)	-	6 (2.4)	1 (0.3)	11 (1.7)	9 (1.5)
계		1,276 (100)	217 (100)	306 (100)	219 (100)	246 (100)	288 (100)	663 (100)	613 (100)

직장생활에서 삶의 질

직장생활에서의 삶의 질은 성인집단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8에서 직장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를 검토해 보면, 부

모 집단 경우에 ‘원만한 인간관계’와 ‘경제적 요인’이 20% 이상의 같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성취감’ ‘자기조절 결여’가 10% 이상의 반응율을 보였으며, 이외에도 ‘근무조건’과 ‘시간적 여유’가 포함되었다. 그런

표 8. 직장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

직장생활	집단	전체	성인		성별	
			부모	교사	남자	여자
1. 원만한 인간관계		354 (23.9)	263 (21.9)	91 (32.7)	208 (23.5)	151 (24.4)
① 원만한 인간관계		191 (12.9)	135 (11.2)	56 (20.1)	96 (11.1)	95 (15.3)
② 동료와의 관계		131 (8.8)	96 (8.0)	35 (12.6)	88 (10.2)	43 (6.9)
③ 상부상조		32 (2.2)	32 (2.7)	-	19 (2.2)	13 (2.1)
2. 경제적 요인		278 (18.8)	264 (21.9)	14 (5.0)	171 (19.8)	107 (17.3)
① 경제적 요인		90 (6.1)	83 (6.9)	7 (2.5)	56 (6.5)	34 (5.5)
② 돈		89 (6.0)	86 (7.1)	3 (1.1)	49 (5.7)	40 (6.5)
③ 보수		63 (4.3)	59 (4.9)	4 (1.4)	37 (4.3)	26 (4.2)
④ 수입		36 (2.4)	36 (3.0)	-	29 (3.4)	7 (1.1)
3. 성취감		258 (17.4)	208 (17.3)	50 (18.0)	148 (17.2)	110 (17.8)
① 성취감		94 (6.3)	81 (6.7)	13 (4.7)	56 (6.5)	38 (6.1)
② 만족도		78 (5.3)	63 (5.2)	15 (5.4)	44 (5.1)	34 (5.5)
③ 보람		52 (3.5)	38 (3.2)	14 (5.0)	24 (2.8)	28 (4.5)
④ 사회적 인정		34 (2.3)	26 (2.2)	8 (2.9)	24 (2.8)	10 (1.6)
4. 자기조절 개발		179 (12.1)	148 (12.3)	31 (11.2)	105 (12.2)	74 (12.0)
① 자기개발		85 (5.7)	75 (6.2)	10 (3.6)	48 (5.6)	37 (6.0)
② 노력		56 (3.8)	50 (4.2)	6 (2.2)	32 (3.7)	24 (3.9)
③ 책임감		38 (2.6)	23 (1.9)	15 (5.4)	25 (2.9)	13 (2.1)
5. 근무조건		157 (10.6)	113 (9.4)	44 (15.8)	101 (11.7)	56 (9.0)
① 근무조건		96 (6.5)	66 (5.5)	30 (10.8)	59 (6.8)	37 (6.0)
② 상사의 지도력		28 (1.9)	14 (1.2)	14 (5.0)	18 (2.1)	10 (1.6)
③ 업무경감		18 (1.2)	18 (1.5)	-	11 (1.3)	7 (1.1)
④ 노후보장		15 (1.0)	15 (1.2)	-	13 (1.5)	2 (.3)
6. 시간적 여유		153 (10.3)	115 (9.6)	38 (13.7)	81 (9.4)	72 (11.6)
① 시간적 여유		61 (4.1)	39 (3.2)	22 (7.9)	31 (3.6)	30 (4.8)
② 여가시간 활용		52 (3.5)	49 (4.1)	3 (1.1)	27 (3.1)	25 (4.0)
③ 취미활동		40 (2.7)	27 (2.2)	13 (4.7)	23 (2.7)	17 (2.7)
7. 능력		41 (2.8)	35 (2.9)	6 (2.2)	24 (2.8)	17 (2.7)
8. 기타		61 (4.1)	57 (4.7)	4 (1.4)	29 (3.4)	32 (5.2)
① 없음		43 (2.9)	43 (3.6)	-	15 (1.7)	28 (4.5)
② 기타		18 (1.2)	14 (1.2)	4 (1.4)	14 (1.6)	4 (.6)
계		1,481 (100)	1,203 (100)	278 (100)	862 (100)	619 (100)

대 교사 집단의 경우는 ‘원만한 인간관계’가 30% 이상의 가장 높은 반응율을 보이고, ‘성취감’ ‘근무조건’ ‘시간적 여유’ ‘자기조절 개발’이 10% 이상을 나타내었으며, ‘경제적 요인’은 5%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두 집단 모두 ‘능력’을 지적한 경우는 3% 미만이었다. 성별

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반응 패턴이 동일하였다.

그러므로 직장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 집단에 따른 차이는 전혀 없으나,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부모집단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에

표 9. 직장생활에서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

직장생활	집단	전체	성인		성별	
			부모	교사	남자	여자
1. 경제적 요인		297 (21.2)	282 (24.7)	15 (5.7)	181 (22.2)	116 (19.8)
① 경제적 요인		103 (7.3)	92 (8.1)	11 (4.2)	70 (8.6)	33 (5.6)
② 수입		84 (6.0)	84 (7.4)	-	48 (5.9)	36 (6.1)
③ 급여불만		73 (5.2)	69 (6.0)	4 (1.5)	43 (5.3)	30 (5.1)
④ 경기침체		37 (2.6)	37 (3.2)	-	20 (2.5)	17 (2.9)
2. 과중한 업무		290 (20.7)	177 (15.5)	113 (43.3)	155 (19.0)	135 (23.0)
① 과중한 업무		146 (10.4)	91 (8.0)	55 (21.1)	78 (9.6)	68 (11.6)
② 불필요한 잡무		90 (6.4)	72 (6.3)	18 (6.9)	50 (6.1)	40 (6.8)
③ 여유부족		54 (3.9)	14 (1.2)	40 (15.3)	27 (3.3)	27 (4.6)
3. 인간관계의 어려움		235 (16.8)	186 (16.3)	49 (18.8)	143 (17.5)	92 (15.7)
① 인간관계의 어려움		88 (6.3)	64 (5.6)	24 (9.2)	48 (5.9)	40 (6.8)
② 상사에 대한 불만족		79 (5.6)	72 (6.3)	7 (2.7)	51 (6.3)	28 (4.8)
③ 동료와의 갈등		42 (3.0)	28 (2.5)	14 (5.4)	26 (3.2)	16 (2.7)
④ 이기주의		26 (1.9)	22 (1.9)	4 (1.5)	18 (2.2)	8 (1.4)
4. 열악한 근무조건		201 (14.3)	163 (14.3)	38 (14.6)	136 (16.7)	65 (11.1)
① 열악한 근무조건		108 (7.7)	85 (7.4)	23 (8.8)	69 (8.5)	39 (6.6)
② 불안정한 직장		38 (2.7)	29 (2.5)	9 (3.4)	25 (3.1)	13 (2.2)
③ 행정제도의 폐단		32 (2.3)	32 (2.8)	-	29 (3.6)	3 (0.5)
④ 편의시설 부족		23 (1.6)	17 (1.5)	6 (2.3)	13 (1.6)	10 (1.7)
5. 스트레스/ 건강 문제		195 (13.9)	164 (14.4)	31 (11.9)	117 (14.4)	78 (13.3)
① 스트레스		71 (5.1)	57 (5.0)	14 (5.4)	45 (5.5)	26 (4.4)
② 사기적하		56 (4.0)	56 (4.9)	-	42 (5.2)	14 (2.4)
③ 건강 문제		36 (2.6)	32 (2.8)	4 (1.5)	15 (1.8)	21 (3.6)
④ 가정문제		32 (2.3)	19 (1.7)	13 (5.0)	15 (1.8)	17 (2.9)
6. 무능력		111 (7.9)	99 (8.7)	12 (4.6)	62 (7.6)	49 (8.3)
① 나태함		69 (4.9)	59 (5.2)	10 (3.8)	37 (4.5)	32 (5.5)
② 무능력		42 (3.0)	40 (3.5)	2 (0.8)	25 (3.1)	17 (2.9)
7. 기타		73 (5.2)	70 (6.1)	3 (1.1)	21 (2.6)	52 (8.9)
① 없다		63 (4.5)	63 (5.5)	-	19 (2.3)	44 (7.5)
② 기타		10 (0.7)	7 (0.6)	3 (1.1)	2 (0.2)	8 (1.4)
계		1,402 (100)	1,141 (100)	261 (100)	815 (100)	587 (100)

종사하는 교사 집단은 큰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원만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부모집단이든 교사집단이든 동일하나, 부모집단에서는 수입에 초점을 둔 경제적인 요인을 보다 강조하는 반면에, 교사집단에서는 일의 만족이나 보람과 같은 성취감을 더욱 강조하

는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났다.

표 9는 직장생활에서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부모집단의 경우에 ‘경제적 요인’이 20% 이상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인간관계의 어려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건강문제’, ‘열악한

근무조건'이 10% 이상의 비슷한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이와 매우 다르게 교사 집단은 '과중한 업무'에 대해 40% 이상의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인간관계의 어려움' '열악한 근무조건' '스트레스/ 건강문제'가 10% 이상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경우에 '경제적 요인'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그 다음이 '과중한 업무'였으며, 여자는 '과중한 업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요인'이 나타났다. 그러나 두 범주에 대한 반응율에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므로 부모 집단에서는 낮은 월급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직장생활에서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지만, 교사들은 이와 달리 경제적 요인은 크게 강조되지 않았고 오히려 과중하고 불필요한 잡무에 대해 반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지적하는 차이점이 있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공통적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교직에 근무하는 교사와 다양한 일반 직업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직장생활에서 삶의 질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는데, 부모들은 경제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 교사들은 일의 성취감이나 과중한 업무와 같이 일과 관련된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전반적으로 직장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원만한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요인, 성취감의 순서였는데, 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도로 낮았다. 직장생활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도 경제적 요인, 과중한 업무,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같은 세 요인이 부각됨으로써, 비록 순서는 높이는 요소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같은 의미의 범주들이므로, 직장생활에서의 삶의 질이 주로 이 세 요인과 관련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직장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 요인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 비해 능력에 대한 반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눈에 띈다.

여가생활에서 삶의 질

여가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분석한 결과가 표 10이다. 학생들의 경우에 '다양한 취미생활'에 대해 40% 이상의 매우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다양한 취미생활을 많이 지적하는 경향은 초·중·고 대학생 집단에서 모두 일치하였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 여유' '자기조절' '시간적 여유' '원만한 인간관계'가 10% 이상의 반응율을 순서대로 보였다. 성인집단에서는 학생들과 달리 '경제적 여유'가 30% 가까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이 '다양한 취미생활' '시간적 여유'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성인들이 학생들보다 여가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는 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1은 여가생활에서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학생들은 '시간 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여건' 역시 20% 이상의 반응을 보였으며,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 문제'가 10% 이상으로 부각되었다. 학생의 하위 집단 내에서 큰 차이가 있었는데, 초·중학생들은 '건강 문제'를, 중학생과 인문고 학생들은 '시간 부족'을, 실업고 학생과 대학생들은 '경제적 여건'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중학생과 인문고 학생들은 학업이나 입학시험 등의 이유로 인해 실제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표 10. 여가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

여가생활 집단	전체	학생						성인		
		초등학생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대학생	계	부모	교사	계
1. 다양한 취미생활	978 (30.9)	111 (50.0)	130 (43.5)	77 (35.5)	94 (38.4)	118 (41.4)	530 (41.8)	386 (23.7)	62 (22.8)	448 (23.6)
① 기타 취미생활	250 (7.9)	23 (10.4)	23 (7.7)	28 (12.9)	30 (12.2)	31 (10.9)	135 (10.6)	91 (5.6)	24 (8.8)	115 (6.0)
② 운동	232 (7.3)	25 (11.3)	29 (9.7)	7 (3.2)	13 (5.3)	17 (6.0)	91 (7.2)	130 (8.0)	11 (4.0)	141 (7.4)
③ 문화생활	196 (6.2)	16 (7.2)	27 (9.0)	12 (5.5)	11 (4.5)	39 (13.7)	105 (8.3)	72 (4.4)	19 (7.0)	91 (4.8)
④ 여가활동	117 (3.7)	9 (4.1)	19 (6.4)	16 (7.4)	10 (4.1)	22 (7.7)	76 (6.0)	41 (2.5)	-	41 (2.2)
⑤ 컴퓨터/ TV	108 (3.4)	29 (13.1)	28 (9.4)	12 (5.5)	27 (11.0)	3 (1.1)	99 (7.8)	9 (.6)	-	9 (.5)
⑥ 여행	75 (2.4)	9 (4.1)	4 (1.3)	2 (.9)	3 (1.2)	6 (2.1)	24 (1.9)	43 (2.6)	8 (2.9)	51 (2.7)
2. 경제적 여유	749 (23.6)	14 (6.3)	18 (6.0)	39 (18.0)	56 (22.9)	59 (20.7)	186 (14.7)	474 (29.1)	89 (32.7)	563 (29.6)
① 돈	397 (12.5)	8 (3.6)	16 (5.4)	36 (16.6)	49 (20.0)	46 (16.1)	155 (12.2)	208 (12.8)	34 (12.5)	242 (12.7)
② 경제력	257 (8.1)	6 (2.7)	2 (.7)	3 (1.4)	4 (1.6)	8 (2.8)	23 (1.8)	198 (12.2)	36 (13.2)	234 (12.3)
③ 경제적 여유	95 (3.0)	-	-	-	3 (1.2)	3 (1.8)	8 (.6)	68 (4.2)	19 (7.0)	87 (4.6)
3. 시간적 여유	515 (16.3)	22 (9.9)	45 (15.1)	27 (12.4)	25 (10.2)	29 (10.2)	148 (11.7)	282 (17.3)	85 (31.3)	367 (19.3)
① 시간적 여유	352 (11.1)	16 (7.2)	16 (5.4)	19 (8.8)	14 (5.7)	21 (7.4)	86 (6.8)	203 (12.5)	63 (23.2)	266 (14.0)
② 마음의 여유	116 (3.7)	3 (1.4)	16 (5.4)	7 (3.2)	8 (3.3)	7 (2.5)	41 (3.2)	56 (3.4)	19 (7.0)	75 (3.9)
③ 휴식	47 (1.5)	3 (1.4)	13 (4.3)	1 (.5)	3 (1.2)	1 (.4)	21 (1.7)	23 (1.4)	3 (1.1)	26 (1.4)
4. 자기조절	280 (8.8)	39 (17.6)	45 (15.1)	31 (14.3)	22 (9.0)	27 (9.5)	164 (12.9)	116 (7.1)	-	116 (6.1)
① 직장생활 충실	138 (4.4)	25 (11.3)	27 (9.0)	20 (9.2)	5 (2.0)	15 (5.3)	92 (7.3)	46 (2.8)	-	46 (2.4)
② 학업충실	80 (2.5)	6 (2.7)	7 (2.3)	6 (2.8)	7 (2.9)	8 (2.8)	34 (2.7)	46 (2.8)	-	46 (2.4)
③ 자기개발	43 (1.4)	7 (3.2)	11 (3.7)	5 (2.3)	10 (4.1)	3 (1.1)	36 (2.8)	7 (.4)	-	7 (.4)
④ 자기만족	19 (.6)	1 (.5)	-	-	-	1 (.4)	2 (.2)	17 (1.0)	-	17 (.9)
5. 원만한 인간관계	245 (7.7)	22 (9.9)	25 (8.4)	22 (10.1)	26 (10.6)	45 (15.8)	140 (11.0)	90 (5.5)	15 (5.5)	105 (5.5)
① 친구관계	134 (4.2)	18 (8.1)	22 (7.4)	17 (7.8)	22 (9.0)	22 (7.7)	101 (8.0)	33 (2.0)	-	33 (1.7)
② 인간관계	111 (3.5)	4 (1.8)	3 (1.0)	5 (2.3)	4 (1.6)	23 (8.1)	39 (3.1)	57 (3.5)	15 (5.5)	72 (3.8)
6. 화목한 가정	132 (4.2)	11 (5.0)	10 (3.3)	7 (3.2)	5 (2.0)	1 (.4)	34 (2.7)	95 (5.8)	3 (1.1)	98 (5.2)
① 화목한 가정	91 (2.9)	8 (3.6)	8 (2.7)	4 (1.8)	5 (2.0)	-	25 (2.0)	63 (3.9)	3 (1.1)	66 (3.5)
② 공동 취미생활	24 (.8)	2 (.9)	-	1 (.5)	-	1 (.4)	4 (.3)	20 (1.2)	-	20 (1.1)
③ 가족의사랑	17 (.5)	1 (.5)	2 (.7)	2 (.9)	-	-	5 (.4)	12 (.7)	-	12 (.6)
7. 건강	110 (3.5)	-	9 (3.0)	4 (1.8)	6 (2.4)	3 (1.1)	22 (1.7)	77 (4.7)	11 (4.0)	88 (4.6)
① 스트레스해소	91 (2.9)	-	7 (2.3)	3 (1.4)	5 (2.0)	3 (1.1)	18 (1.4)	62 (3.8)	11 (4.0)	73 (3.8)
② 건강	19 (.6)	-	2 (.7)	1 (.4)	1 (.4)	-	4 (.3)	15 (.9)	-	15 (.8)
8. 기타	160 (5.0)	3 (1.4)	17 (5.7)	10 (4.6)	11 (4.5)	3 (1.1)	44 (3.5)	109 (6.7)	7 (2.6)	116 (6.1)
① 종교활동	42 (1.3)	1 (.5)	2 (.7)	4 (1.8)	-	-	7 (.6)	35 (2.1)	-	35 (1.8)
② 봉사활동	50 (1.6)	-	13 (4.3)	1 (.5)	4 (1.6)	1 (.4)	19 (1.5)	24 (1.5)	7 (2.6)	31 (1.6)
③ 없음	43 (1.4)	1 (.5)	1 (.3)	3 (1.4)	7 (2.9)	1 (.4)	13 (1.0)	30 (1.8)	-	30 (1.6)
④ 기타	25 (.8)	1 (.5)	1 (.3)	2 (.9)	-	1 (.4)	5 (.4)	20 (1.2)	-	20 (1.1)
계	3,169 (100)	222 (100)	299 (100)	217 (100)	245 (100)	285 (100)	1,268 (100)	1,629 (100)	272 (100)	1,901 (100)

표 11. 여가생활에서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

여가생활	집단	전체	학생						성인		
			초등학생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대학생	계	부모	교사	계
1. 시간부족		926 (30.3)	40 (19.8)	72 (25.1)	79 (36.4)	40 (16.9)	94 (33.0)	325 (26.5)	504 (32.4)	97 (35.8)	601 (32.9)
① 시간 부족		670 (21.9)	30 (14.9)	40 (13.9)	61 (28.1)	28 (11.9)	55 (19.3)	214 (17.4)	394 (25.3)	62 (22.9)	456 (25.0)
② 여가시간 부족		127 (4.2)	7 (3.5)	19 (6.6)	12 (5.5)	3 (1.3)	17 (6.0)	58 (4.7)	43 (2.8)	26 (9.6)	69 (3.8)
③ 바쁜 일정		74 (2.4)	1 (.5)	7 (2.4)	2 (.9)	3 (1.3)	14 (4.9)	27 (2.2)	47 (3.0)	-	47 (2.6)
④ 여가생활시설 부족		55 (1.8)	2 (1.0)	6 (2.1)	4 (1.8)	6 (2.5)	8 (2.8)	26 (2.1)	20 (1.3)	9 (3.3)	29 (1.6)
2. 경제적 여건		916 (30.0)	15 (7.4)	18 (6.3)	48 (22.1)	64 (27.1)	110 (38.6)	255 (20.8)	555 (35.7)	106 (39.1)	661 (36.2)
① 경제력		440 (14.4)	7 (3.5)	11 (3.8)	37 (17.1)	53 (22.5)	78 (27.4)	186 (15.2)	219 (14.1)	35 (12.9)	254 (13.9)
② 경제적 여건		303 (9.9)	7 (3.5)	5 (1.7)	8 (3.7)	4 (1.7)	8 (2.8)	32 (2.6)	234 (15.0)	37 (13.7)	271 (14.8)
③ 돈		143 (4.7)	-	2 (.7)	3 (1.4)	6 (2.5)	23 (8.1)	34 (2.8)	75 (4.8)	34 (12.5)	109 (6.0)
④ 과소비		30 (1.0)	1 (.5)	-	-	1 (.4)	1 (.4)	3 (.2)	27 (1.7)	-	27 (1.5)
3. 인간관계 문제		247 (8.1)	29 (14.4)	53 (18.5)	14 (6.5)	29 (12.3)	9 (3.2)	134 (10.9)	94 (6.0)	19 (7.0)	113 (6.2)
① 인간관계 문제		125 (4.1)	26 (12.9)	23 (8.0)	9 (4.1)	20 (8.5)	9 (3.2)	87 (7.1)	34 (2.2)	4 (1.5)	38 (2.1)
② 가족관계 문제		122 (4.0)	3 (1.5)	30 (10.5)	5 (2.3)	9 (3.8)	-	47 (3.8)	60 (3.9)	15 (5.5)	75 (4.1)
4. 자기조절 결여		213 (7.0)	30 (14.9)	21 (7.3)	11 (5.1)	16 (6.8)	20 (7.0)	98 (8.0)	108 (6.9)	7 (2.6)	115 (6.3)
① 게으름		96 (3.1)	11 (5.4)	14 (4.9)	3 (1.4)	4 (1.7)	7 (2.5)	39 (3.2)	52 (3.3)	5 (1.8)	57 (3.1)
② 의욕부족		91 (3.0)	13 (6.4)	5 (1.7)	7 (3.2)	10 (4.2)	10 (3.5)	45 (3.7)	44 (2.8)	2 (.7)	46 (2.5)
③ 자신감		26 (.9)	6 (3.0)	2 (.7)	1 (.5)	2 (.8)	3 (1.1)	14 (1.1)	12 (.8)	-	12 (.7)
5. 학업부담		207 (6.8)	8 (4.0)	7 (2.4)	8 (3.7)	9 (3.8)	16 (5.6)	48 (3.9)	128 (8.2)	31 (11.4)	159 (8.7)
① 학원		80 (2.6)	4 (2.0)	1 (.3)	2 (.9)	4 (1.7)	3 (1.1)	14 (1.1)	57 (3.7)	9 (3.3)	66 (3.6)
② 성적		52 (1.7)	4 (2.0)	6 (2.1)	4 (1.8)	2 (.8)	4 (1.4)	20 (1.6)	27 (1.7)	5 (1.8)	32 (1.8)
③ 공부		46 (1.5)	-	-	1 (.5)	2 (.8)	9 (3.2)	12 (1.0)	34 (2.2)	-	34 (1.9)
④ 교육제도		29 (.9)	-	-	1 (.5)	1 (.4)	-	2 (.2)	10 (.6)	17 (6.3)	27 (1.5)
6. 건강 문제		180 (5.9)	48 (23.8)	54 (18.8)	37 (17.1)	15 (6.4)	16 (5.6)	170 (13.9)	10 (.6)	-	10 (.5)
① 건강 문제		117 (3.8)	34 (16.8)	35 (12.2)	25 (11.5)	10 (4.2)	11 (3.9)	115 (9.4)	2 (.1)	-	2 (.1)
② 스트레스		25 (.8)	12 (5.9)	12 (4.2)	1 (.5)	-	-	25 (2.0)	-	-	-
③ 과로		23 (.8)	1 (.5)	2 (.7)	9 (4.1)	1 (.4)	5 (1.8)	18 (1.5)	5 (.3)	-	5 (.3)
④ 음주		15 (.5)	1 (.5)	5 (1.7)	2 (.9)	4 (1.7)	-	12 (1.0)	3 (.2)	-	3 (.2)
7. 과도한 취미활동		167 (5.5)	22 (10.9)	35 (12.2)	18 (8.3)	33 (14.0)	16 (5.6)	124 (10.1)	32 (2.1)	11 (4.1)	43 (2.4)
① TV 시청 과다		78 (2.6)	10 (5.0)	28 (9.8)	5 (2.3)	24 (10.2)	8 (2.8)	75 (6.1)	3 (.2)	-	3 (.2)
② 운동 과다		39 (1.3)	2 (1.0)	2 (.7)	6 (2.8)	6 (2.5)	5 (1.8)	21 (1.7)	7 (.5)	11 (4.1)	18 (1.0)
③ 컴퓨터게임 몰입		37 (1.2)	6 (3.0)	4 (1.4)	6 (2.8)	2 (.8)	3 (1.1)	21 (1.7)	16 (1.0)	-	16 (.9)
④ 기타 취미생활		15 (.4)	4 (2.0)	1 (.3)	1 (.5)	1 (.4)	-	7 (.6)	6 (.4)	-	6 (.3)
8. 기타		197 (6.5)	10 (5.0)	27 (9.4)	2 (.9)	30 (12.7)	4 (1.4)	73 (5.9)	124 (8.0)	-	124 (6.8)
① 없음		85 (2.8)	-	8 (2.8)	-	20 (8.5)	3 (1.1)	31 (2.5)	54 (3.5)	-	54 (3.0)
② 환경문제		76 (2.5)	4 (2.0)	19 (6.6)	1 (.5)	10 (4.2)	1 (.4)	35 (2.9)	41 (2.6)	-	41 (2.2)
③ 기타		36 (1.2)	6 (3.0)	-	1 (.5)	-	-	7 (.6)	29 (1.9)	-	29 (1.6)
계		3,053 (100)	202 (100)	287 (100)	217 (100)	236 (100)	285 (100)	1,227 (100)	1,555 (100)	271 (100)	1,826 (100)

시간적인 제약이 가장 문제되는 것 같았고, 실업고 학생이나 대학생들은 여가생활을 누리 기 위한 경제적인 여건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성인들은 '경제적 여 건'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그 다음으로 '시간 부족'을 지적함으로써, 실업고 학생이나 대학 생과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경제적인 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은 부모집단이나 교사 집단 모두 동일하였다.

표 10과 표 11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여 가생활에서 삶의 질은 경제적인 여건이 핵심 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시간적 여유도 중요하 였다. 특별히 인간관계가 여가생활의 삶의 질 을 높이거나 낮추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흥 미롭다. 가족관계나 친구관계 등 다양한 인간 관계가 여가생활과 관련된 삶의 질을 결정하 는데 밀접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적인 자신의 삶의 질

표 12는 앞에서 다룬 가정생활과 여가생활,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생활과 성인들의 경우는 직장생활에서의 삶의 질의 문제를 종 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대한 표상을 정리한 결과이다. 학생들의 경우에 '자기조절'이 20% 이상의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학업성 취' '원만한 인간관계' '여가생활' '경제적 요 인' '화목한 가정'이 10% 이상의 반응율을 보 였다. 학생들의 경우는 자기조절과 더불어 학 업성취와 같은 학업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었고, 원만한 인간관계는 여전 히 중요한 핵심 요인으로 포함되었다. 학생 집단 내에서 볼 때, 초등학생은 '여가생활'을, 중학생과 인문고 학생은 '자기조절'을, 실업고

학생은 '경제적 요인'을, 대학생은 '자기조절' 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질에 대한 인식 에서 학생의 하위집단별로 발달단계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인 집단의 경우는 '경제적 요인'에 대해 30% 이상의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부모나 교사집단 모두 동일하 였다. 그 다음으로 '자기조절'이 20% 이상을 보였으며, '화목한 가정'과 '여가생활'이 각각 10% 이상의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성 인들은 학생들보다 경제적 요인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기조절이나 화목한 가정을 중요시 하는 경향은 학생과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자신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 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분석한 표 13을 보면, 학생들의 경우에 '자기조절 결여'가 20% 이상 으로 가장 높고, 이와 비슷한 비율로 '경제적 요인' 및 '학업 부담'이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 하위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는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학업 부 담'을, 인문고 학생은 '자기조절 결여'를, 실업 고 학생과 대학생은 '경제적 요인'을 가장 많 이 지적하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성 인집단은 '경제적 요인'을 40% 가까운 수가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부모나 교사 집 단 모두 동일하였다.

표 12와 표 13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 성인들의 경우는 경제적인 요인이 중 요하게 인식되고 있었고, 이에 비해 학생들은 자기조절이나 학업에서의 성취와 같이 학업과 관련된 문제가 삶의 질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화목한 가정이라든가

표 12. 종합적으로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

상승요인	집단	전체	학생						성인		
			초등학생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대학생	계	부모	교사	계
1. 경제적 요인		733 (22.9)	13 (5.7)	12 (4.0)	32 (14.4)	62 (25.5)	34 (11.6)	153 (11.9)	487 (29.7)	93 (34.1)	580 (30.3)
① 돈		340 (10.6)	7 (3.1)	12 (4.0)	31 (14.0)	50 (20.6)	24 (8.2)	124 (9.6)	191 (11.7)	25 (9.2)	216 (11.3)
② 경제력		197 (6.2)	3 (1.3)	-	-	5 (2.1)	4 (1.4)	12 (.9)	135 (8.2)	50 (18.3)	185 (9.7)
③ 경제적 요인		147 (4.6)	3 (1.3)	-	1 (.5)	7 (2.9)	5 (1.7)	16 (1.2)	127 (7.7)	4 (1.5)	131 (6.9)
④ 수입		49 (1.5)	-	-	-	-	1 (.3)	1 (.1)	34 (2.1)	14 (5.1)	48 (2.5)
2. 자기조절		705 (22.0)	36 (15.8)	68 (22.6)	51 (23.0)	52 (21.4)	105 (35.8)	312 (24.2)	320 (19.5)	73 (26.7)	393 (20.6)
① 긍정적 사고		182 (5.7)	3 (1.3)	27 (9.0)	3 (1.4)	13 (5.3)	21 (7.2)	67 (5.2)	77 (4.7)	38 (13.9)	115 (6.0)
② 성취감		171 (5.3)	8 (3.5)	4 (1.3)	22 (9.9)	11 (4.5)	32 (10.9)	77 (6.0)	83 (5.1)	11 (4.0)	94 (4.9)
③ 적극적 태도		135 (4.2)	9 (3.9)	1 (.3)	10 (4.5)	11 (4.5)	30 (10.2)	61 (4.7)	57 (3.5)	17 (6.2)	74 (3.9)
④ 자기계발		127 (4.0)	11 (4.8)	20 (6.6)	12 (5.4)	5 (2.1)	11 (3.8)	59 (4.6)	66 (4.0)	2 (.7)	68 (3.6)
⑤ 노력		47 (1.5)	3 (1.3)	11 (3.7)	3 (1.4)	9 (3.7)	3 (1.0)	29 (2.3)	18 (1.1)	-	18 (.9)
⑥ 성실		43 (1.3)	2 (.9)	3 (1.7)	1 (.5)	3 (1.2)	8 (2.7)	19 (1.5)	19 (1.2)	5 (1.8)	24 (1.3)
3. 여가생활		464 (14.5)	52 (22.8)	33 (11.0)	43 (19.4)	16 (6.6)	38 (13.0)	182 (14.1)	233 (14.2)	49 (17.9)	282 (14.7)
① 여가생활		173 (5.4)	18 (7.9)	20 (6.6)	14 (6.3)	1 (.4)	19 (6.5)	72 (5.6)	78 (4.8)	23 (8.4)	101 (5.3)
② 취미생활		117 (3.7)	7 (3.1)	4 (1.3)	15 (6.8)	2 (.8)	9 (3.1)	37 (2.9)	67 (4.1)	13 (4.8)	80 (4.2)
③ 시간적 여유		96 (3.0)	22 (9.6)	8 (2.7)	9 (4.1)	9 (3.7)	4 (1.4)	52 (4.0)	44 (2.7)	-	44 (2.3)
④ 문화생활		78 (2.4)	5 (2.2)	1 (.3)	5 (2.3)	4 (1.6)	6 (2.0)	21 (1.6)	44 (2.7)	13 (4.8)	57 (3.0)
4. 화목한 가정		434 (13.6)	47 (20.6)	37 (12.3)	19 (8.6)	28 (11.5)	12 (4.1)	143 (11.1)	273 (16.7)	18 (6.6)	291 (15.2)
① 가족		216 (6.8)	35 (15.4)	20 (6.6)	9 (4.1)	8 (3.3)	6 (2.0)	78 (6.1)	131 (8.0)	7 (2.6)	138 (7.2)
② 가정화목		143 (4.5)	5 (2.2)	12 (4.0)	8 (3.6)	13 (5.3)	2 (.7)	40 (3.1)	95 (5.8)	8 (2.9)	103 (5.4)
③ 가족의 사랑		61 (1.9)	7 (3.1)	3 (1.0)	2 (.9)	4 (1.6)	3 (1.0)	19 (1.5)	39 (2.4)	3 (1.1)	42 (2.2)
④ 가족간의 대화		14 (.4)	-	2 (.7)	-	3 (1.2)	1 (.3)	6 (.5)	8 (.5)	-	8 (.4)
5. 원만한 인간관계		259 (8.1)	29 (12.7)	42 (14.0)	43 (19.4)	26 (10.7)	49 (16.7)	189 (14.7)	54 (3.3)	16 (5.9)	70 (3.7)
① 대인관계		133 (4.2)	12 (5.3)	7 (2.3)	23 (10.4)	7 (2.9)	31 (10.6)	80 (6.2)	42 (2.6)	11 (4.0)	53 (2.8)
② 친구관계		102 (3.2)	14 (6.1)	26 (8.6)	19 (8.6)	19 (7.8)	18 (6.1)	96 (7.5)	4 (.2)	2 (.7)	6 (.3)
③ 가족관계		24 (.8)	3 (1.3)	9 (3.0)	1 (.5)	-	-	13 (1.0)	8 (.5)	3 (1.1)	11 (.6)
6. 건강		225 (7.0)	12 (5.3)	17 (5.6)	10 (4.5)	15 (6.2)	5 (1.7)	59 (4.6)	153 (9.3)	13 (4.8)	166 (8.7)
① 건강		164 (5.1)	6 (2.6)	13 (4.3)	8 (3.6)	5 (2.1)	2 (.7)	34 (2.6)	117 (7.1)	13 (4.8)	130 (6.8)
② 운동		61 (1.9)	6 (2.6)	4 (1.3)	2 (.9)	10 (4.1)	3 (1.0)	25 (1.9)	36 (2.2)	-	36 (1.9)
7. 학업성취		212 (6.6)	39 (17.1)	65 (21.6)	22 (9.9)	25 (10.3)	40 (13.7)	191 (14.8)	21 (1.3)	-	21 (1.1)
① 공부		174 (5.4)	37 (16.2)	53 (17.6)	15 (6.8)	19 (7.8)	37 (12.6)	161 (12.5)	13 (.8)	-	13 (.7)
② 성적		38 (1.2)	2 (.9)	12 (4.0)	7 (3.2)	6 (2.5)	3 (1.0)	30 (2.3)	8 (.5)	-	8 (.4)
8. 기타		167 (5.2)	-	27 (9.0)	2 (.9)	19 (7.8)	10 (3.4)	58 (4.5)	98 (6.0)	11 (4.0)	109 (5.7)
① 종교생활		64 (2.0)	-	4 (1.3)	2 (.9)	-	8 (2.7)	14 (1.1)	42 (2.6)	8 (2.9)	50 (2.6)
② 봉사활동		63 (2.0)	-	20 (6.6)	-	8 (3.3)	2 (.7)	30 (2.3)	30 (1.8)	3 (1.1)	33 (1.7)
③ 환경		20 (.6)	-	3 (1.0)	-	2 (.8)	-	5 (.4)	15 (.9)	-	15 (.8)
④ 기타		20 (.6)	-	-	-	9 (3.7)	-	9 (.7)	11 (.7)	-	11 (.6)
계		3,199 (100)	228 (100)	301 (100)	222 (100)	243 (100)	293 (100)	1,287 (100)	1,639 (100)	273 (100)	1,912 (100)

표 13. 종합적으로 자신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

하강요인	집단	전체	학생					성인		
			초등학생	중학생	인문고	실업고	대학생	계	부모	교사
1. 경제적 요인		925 (30.5)	11 (5.3)	15 (5.1)	36 (16.6)	70 (29.8)	104 (37.4)	236 (19.1)	599 (38.8)	90 (34.7)
① 경제력		340 (10.6)	6 (2.9)	9 (3.0)	27 (12.4)	54 (23.0)	72 (25.9)	168 (13.6)	269 (17.4)	35 (9.7)
② 돈		255 (8.4)	3 (1.4)	4 (1.4)	7 (3.2)	13 (5.5)	20 (7.2)	47 (3.8)	208 (13.5)	·
③ 경제적 요인		208 (6.9)	2 (1.0)	2 (.7)	2 (.9)	3 (1.3)	12 (4.3)	21 (1.7)	122 (7.9)	6 (25.1)
2. 자기조절 결여		564 (18.6)	48 (23.1)	45 (15.2)	50 (23.0)	46 (19.6)	93 (33.5)	282 (22.9)	237 (15.4)	45 (17.4)
① 부정적 사고		186 (6.1)	24 (11.5)	9 (3.0)	24 (11.1)	8 (3.4)	8 (2.9)	73 (5.9)	82 (5.3)	31 (12.0)
② 성격		131 (4.3)	13 (6.3)	6 (2.0)	12 (5.5)	14 (6.0)	31 (11.2)	76 (6.2)	48 (3.1)	7 (2.7)
③ 게으름		77 (2.5)	5 (2.4)	17 (5.7)	5 (2.3)	7 (3.0)	13 (4.7)	47 (3.8)	25 (1.6)	5 (1.9)
④ 자신감		67 (2.2)	1 (.5)	1 (.3)	5 (2.3)	9 (3.8)	28 (10.1)	44 (3.6)	23 (1.5)	·
⑤ 무능력		54 (1.8)	5 (2.4)	9 (3.0)	1 (.5)	7 (3.0)	6 (2.2)	28 (2.3)	26 (1.7)	·
⑥ 이기심		49 (1.6)	·	3 (1.0)	3 (1.4)	1 (.4)	7 (2.5)	14 (1.1)	33 (2.1)	2 (.8)
3. 여가시간 부족		382 (12.6)	15 (7.2)	14 (4.7)	22 (10.1)	7 (3.0)	18 (6.5)	76 (6.2)	240 (15.6)	66 (25.5)
① 시간 부족		272 (9.0)	13 (6.3)	10 (3.4)	16 (7.4)	6 (2.6)	13 (4.7)	38 (4.7)	164 (10.6)	30 (19.3)
② 과중한 업무		56 (1.8)	2 (1.0)	·	2 (.9)	·	2 (.7)	6 (.5)	42 (2.7)	8 (3.1)
③ 여가 시간 부족		54 (1.8)	·	4 (1.4)	4 (1.8)	1 (.4)	3 (1.1)	12 (1.0)	34 (2.2)	8 (3.1)
4. 건강 문제		295 (9.7)	6 (2.9)	20 (6.8)	14 (6.5)	15 (6.4)	18 (6.5)	73 (5.9)	186 (12.1)	36 (13.9)
① 건강 문제		151 (5.0)	5 (2.4)	5 (1.7)	2 (.9)	11 (4.7)	4 (1.4)	27 (2.2)	103 (6.7)	21 (8.1)
② 스트레스		99 (3.3)	·	13 (4.4)	12 (5.5)	3 (1.3)	8 (2.9)	36 (2.9)	48 (3.1)	15 (5.8)
③ 술 담배		45 (1.5)	1 (.5)	2 (.7)	·	1 (.4)	6 (2.2)	10 (.8)	35 (2.3)	·
5. 학업 부담		258 (8.5)	49 (23.6)	68 (21.3)	70 (32.3)	24 (10.2)	20 (7.2)	226 (18.3)	32 (2.1)	·
① 학업부담		193 (6.4)	33 (15.9)	60 (20.3)	55 (25.3)	22 (9.4)	11 (4.0)	181 (14.7)	12 (.8)	·
② 교육환경		28 (.9)	·	3 (1.0)	5 (2.3)	2 (.9)	9 (3.2)	19 (1.5)	9 (.6)	·
③ 사교육		22 (.7)	10 (4.8)	·	1 (.5)	·	·	11 (.9)	11 (.7)	·
④ 학교생활		15 (.5)	6 (2.9)	·	9 (4.1)	·	·	15 (1.2)	·	·
6. 가정 문제		223 (7.3)	18 (8.7)	62 (20.9)	5 (2.3)	22 (9.4)	1 (.4)	108 (8.8)	103 (6.7)	12 (4.6)
① 가정불화		87 (2.9)	7 (3.4)	9 (3.0)	3 (1.4)	12 (5.1)	1 (.4)	32 (2.6)	44 (2.9)	11 (4.2)
② 가족관계		53 (1.7)	7 (3.4)	15 (5.1)	1 (.5)	·	·	23 (1.9)	30 (1.9)	·
③ 부모의 잔소리		29 (1.0)	2 (1.0)	20 (6.8)	1 (.5)	3 (1.3)	·	26 (2.1)	3 (.2)	·
④ 가족구성원 책임감 부족		27 (.9)	1 (.5)	10 (3.4)	·	·	·	11 (.9)	16 (1.0)	·
⑤ 가족 대화 부족		27 (.9)	1 (.5)	8 (2.7)	·	7 (3.0)	·	16 (1.3)	10 (.6)	1 (.4)
7. 인간관계 문제		118 (3.9)	26 (12.5)	26 (8.8)	10 (4.6)	9 (3.8)	11 (4.0)	82 (6.6)	32 (2.1)	4 (1.5)
① 친구관계		52 (1.7)	10 (4.8)	7 (2.4)	4 (1.8)	3 (1.3)	6 (2.2)	30 (2.4)	18 (1.2)	4 (1.5)
② 인간관계		32 (1.1)	11 (5.3)	8 (2.7)	3 (1.4)	2 (.9)	·	24 (1.9)	8 (.5)	·
③ 다툼		34 (1.1)	5 (2.4)	11 (3.7)	3 (1.4)	4 (1.7)	5 (1.8)	28 (2.3)	6 (.4)	·
8. 과도한 취미활동		142 (4.7)	27 (13.0)	37 (12.5)	10 (4.6)	22 (9.4)	8 (2.9)	104 (8.4)	38 (2.5)	·
① 많이 노는 것		67 (2.2)	19 (9.1)	20 (6.8)	2 (.9)	17 (7.2)	4 (1.4)	62 (5.0)	5 (.3)	·
② 기타 취미생활 과다		32 (1.1)	3 (1.4)	9 (3.0)	3 (1.4)	5 (2.1)	1 (.4)	21 (1.7)	11 (.7)	·
③ 컴퓨터 과다		27 (.9)	5 (2.4)	2 (.7)	4 (1.8)	·	3 (1.1)	14 (1.1)	13 (.8)	·
④ TV 시청 과다		16 (.5)	·	6 (2.0)	1 (.5)	·	·	7 (.6)	9 (.6)	·
9. 기타		129 (4.2)	8 (3.8)	14 (4.7)	·	20 (8.5)	3 (1.8)	47 (3.8)	76 (4.9)	6 (2.3)
① 없다		90 (3.0)	8 (3.8)	14 (4.7)	·	19 (8.1)	4 (1.4)	45 (3.6)	45 (2.9)	·
② 기타		39 (1.3)	·	·	·	1 (.4)	1 (.4)	2 (.2)	31 (2.0)	6 (2.3)
계		3,036 (100)	208 (100)	296 (100)	217 (100)	235 (100)	278 (100)	1,234 (100)	1,543 (100)	259 (100)

원만한 인간관계와 같은 범주들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포함되었다.

삶의 질, 성취도, 가정의 경제수준, 연령의 관계

삶의 질과 관련 변인들 즉 생활만족도, 성취도, 가정의 경제수준 및 연령과의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가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삶의 질은 종합적인 삶의 질 수준만이 아니라, 하위 영역별 삶의 질 수준을 모두 포함하였다. 하위 영역별 삶의 질은 학생의 경우에 가정생활 학교생활 여가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성인의 경우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학생의 경우에 종합적인 삶의 질과 삶의 질 하위영역 모두 연령과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및 가정의 경제수준과는 모두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특별히 가정생활 삶의 질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나이가 어린 학생일수록 삶의 질 수준을 높게 지각하며, 이러한 경향

은 종합적인 삶의 질에 대한 지각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학교생활 여가생활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학업 성취도가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의 삶의 질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성인의 경우는, 삶의 질 수준이 연령과는 거의 무상관을 보였으며, 생활만족도 성취도 및 가정의 경제수준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가정생활 삶의 질 수준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성인들은 학생들과 달리 연령의 고하가 삶의 질 수준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성취도가 높을수록 종합적인 삶의 질 수준만이 아니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및 여가생활에서의 삶의 질 수준이 높은 점에서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경향을 나타내었다.

삶의 질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삶의 질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설명

표 14. 삶의 질, 생활만족도, 성취도, 연령의 상관관계

학생	삶의 질: 종합	삶의 질: 가정생활	삶의 질: 학교생활	삶의 질: 여가생활
생활만족도	.60 ***	.54 ***	.55 ***	.48 ***
학업성취도	.24 ***	.20 ***	.20 ***	.13 ***
가정의 경제수준	.11 ***	.42 ***	.26 ***	.29 ***
연령	-.29 ***	-.30 ***	-.35 ***	-.24 ***
성인	삶의 질: 종합	삶의 질: 가정생활	삶의 질: 학교생활	삶의 질: 여가생활
생활만족도	.61 ***	.57 ***	.56 ***	.55 ***
성취도	.36 ***	.34 ***	.28 ***	.28 ***
가정의 경제수준	.21 ***	.53 ***	.41 ***	.41 ***
연령	-.06 **	-.02	-.01	-.06 **

** $p < .05$ *** $p < .001$

표 15. 삶의 질(종합) 수준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학생) 독립변인	R	R Square	B	Beta	MS	F
가정경제수준	.38	.15	.45	.29	233.34	223.33 ***
연령	.43	.18	-.05	-.19	145.77	145.81 ***
학업성취도	.46	.21	.17	.16	110.60	114.18 ***
(성인) 독립변인	R	R Square	B	Beta	MS	F
가정경제수준	.55	.30	.68	.43	679.22	831.03 ***
성취도	.60	.36	.35	.27	404.30	540.38 ***

*** $p < .001$

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stepwise 방식)을 시도하였다. 종속변인은 자신의 종합적인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으로 하였다.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 중다회귀분석을 위한 투입변인으로서는 연령, 성별, 가정의 경제수준 및 학업성취도를 하였다. 성인의 경우는 투입변인을 연령, 성별, 가정의 경제수준 및 성취도로 하였다. 성인의 성취도 변인은 아버지, 어머니 중에서도 직장을 가진 경우나 교사 집단은 직장 성취도를, 어머니 집단 중에서 전업 주부인 경우는 가정생활 성취도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가 표 15에 제시되어 있다. 학생들의 경우에 가정의 경제수준이 종합적인 삶의 질을 15% 설명하고, 이 외에 연령과 학업성취도가 각각 3%의 설명력을 추가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과 학업성취도의 베타 값은 정적 방향이나 연령의 베타 값은 부적 방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경우에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고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을 높게 지각하나, 연령은 낮을수록 자신의 종합적인 삶의 질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인들의 경우에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30%

의 설명력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성취도가 6%의 설명력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두 변인의 베타 값 모두 정적인 방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성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요하며, 학생들보다 성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에서 경제적 측면이 더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인들은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의 성취도가 더욱 높을수록, 자신의 삶의 질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삶의 질 인식을 통해 본

한국 사람의 토착심리 탐구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막연하게 포괄적인 수준을 벗어나,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상의 삶의 질에 대한 탐색들로 연결되는 추세이다. 예컨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삶의 질과 같은 문제들이(이순철, 2005) 관심을 끌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면서 문제의식이 보다 정교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의 면에서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토착심리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 한국 사람의 행복감이 낮은 이유를 분석한 연구(서은국, 2005), 한국에서 주관적 안녕감은 자기 기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밝힌 연구(한덕웅, 2005), 여가활동과 여가 동기가 주관적 안녕감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한국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 연구(채선애, 한성열, 2002) 등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자신이 성장하려는 자기향상동기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정서가 높았고, 타인과 비교하는 동기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덜 행복하다고 평가하는 등,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 인식에서의 특징들에 대한 시사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의 삶의 질 인식 그 자체에 용해되어 있는 토착적인 심리의 이해에 대한 갈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여기에서는 김의철과 박영신(2004b)의 연구와 이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꿰어봄으로써,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 인식에 함축되어 있는 토착심리들을 탐색하는 시도를 하기로 한다. 나아가 여기에서 밝혀진 결과들이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한국 사람의 토착심리에 대한 발견들과 어떻게 연결되고 통합되는가를 더불어 고찰해 보기로 한다.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정리해 볼 때, 한국 사람의 토착심리와 관련된 몇 가지 측면들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특별히 네 측면 즉 첫째, 높은 삶의 질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서 원만한 인간관계, 둘째, 필요충분조건이 아

닌 필요조건으로서의 경제적 요인, 셋째, 행복을 창조하는 비법으로서 자기조절, 넷째, 교육적 성취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이 함축하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다.

높은 삶의 질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서 원만한 인간관계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온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논어 학이편 1절)

한국 사람 삶의 질 인식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토착심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가장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높은 삶의 질을 구현하기 위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 결과를 보면, 성인들이 직장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서 능력과 같은 측면을 응답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가장 많은 비율이 직장 동료와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지적하였다. 학생들 경우는 학교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친구관계를, 삶의 질을 낮추는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로 친구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학생과 성인 모두 가정생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화목한 가족관계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는데,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도 가족간의 갈등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별히 흥미로운 사실은 여가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원만한 인간관계가 요구되고 있었으며, 동시에 인간관계에서의 문제 때문에 여가생활에서 삶의 질이 낮아진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종합적으로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낮추는 요소로도 인간관계와 관련된 측면이 포함되었다. 나아가서 한국 사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을 기반으로 하는 원만한 인간관계가 중요하며, 한편으로는 연고주의나 집단 이기주의와 같은 내집단 편애주의가 한국 사회 삶의 질을 낮추고 있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관계가 한국 사람의 삶의 질 수준을 자리매김해 나가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주었다. 로또가 수십억 이상 당첨되었어도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붕괴되면서 결과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SBS, 2006년 1월 14일). 로또 당첨자 본인들만이 아니라 자녀가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해 그만두는 등 자녀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사례들은 경험과학적인 연구 결과들과 더불어, 한국 사람의 삶의 질 인식에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과연 인간관계의 어떤 측면이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해 보게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으나, 여기에서는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의 맥락에서 이해해 보기로 하자.

인간관계를 통한 사회적 지원이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시사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한국 노인이 행복을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순간이 가족과의 만남이었고 그 다음이 가족의 안녕이었으며, 친구도 의미 있게 포함되었다(한창수, 2005). Ng, Woo, Kwan, Chong과 Lai(2005)도 노인들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한 쇠퇴를 경험하지만, 이러한 나이로 인한 쇠퇴를 저지하고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 자원과 사회인지적 양식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성공적 노화를 위한 자원

으로서 세 요소 즉 삶의 방식, 사회적 연결망, 경제력을, 그리고 사회인지적 양식으로서 세 요소 즉 대처 전략, 유모, 미래 시간전망과 같은 측면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인 연결망을 통해 의미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노인들의 경우에 삶의 질이 향상됨을 보여준다.

원만한 인간관계로부터 풍부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 지원은 심리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며, 높아진 효능감은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지각을 긍정적인 수준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거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그동안 국내외 연구에서(Bandura, 1997;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다양한 표집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검증되어왔다. 그리고 김의철, 홍천수, 이정권과 박영신(2005)이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한 결과에서도,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그 중요성이 재검증되었다. 서경현(2005)도 한국 사람의 건강을 삶의 질의 관점에서 논의하면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House, Landis와 Umberson(1988)의 연구에 의하면, 배우자나 친구와의 인간관계를 통한 교류는 심리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과 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고 사망률이 높았다.

후속연구에서는 한국 사람의 삶의 질 수준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되는 변인들을 투입하여 정교하게 분석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회적 지원이나 자기효

능감이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한 경험 과학적 검증이 요구된다. 예컨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미향, 박영신과 김의철(200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초등학생의 삶의 질은 관계효능감과 부모의 사회적 지원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필요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서의 경제적 요인

財聚則民散, 財散則民聚

재물을 모으면 사람들이 흩어지고, 재물을 나눠주면 사람들이 모인다
(대학 10장)

경제적 요인이 삶의 질 문제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Diener & Oishi, 2000)는 사실은 이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경제적 요인이, 낮추는 요소로 경제 불안이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로도 역시 경제적 요인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하다. 그리고 여가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거나 낮추는 요소도 경제적 여유가 각각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났고,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두 번째 요소로, 삶의 질을 낮추는 첫 번째 요소로 경제문제가 부각되었음을 통해 더욱 강하게 뒷받침된다. 성인들의 경우에 직장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두 번째 원인으로, 삶의 질을 낮추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활동과 많이 관계되어 있다. 특별히 사회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졌을 때는 취업의 어려움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IMF시대 한국 사람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김의철, 박영신, 1999)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경제적인 위기의식과 직접 간접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경제적인 측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과연 경제적 요인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의미있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여기에서 다시 로또복권 때문에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SBS, 2006년 9월 14일)로 돌아가 보기로 하자. 일확천금을 하였을 때 아마 그들이 꿈꾼 인생 역전은 현재와 질적으로 다른 긍정적이고 멋진 삶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만나게 된 현실은 질적으로 다른 삶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였으나,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만이 아니라 더욱 부정적인 방향일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에, 많은 시간이 지난 후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왜 그렇게 원하던 많은 돈을 획득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결과적으로 행복을 붙잡지 못하였는가? 그들이 재물을 모았지만 그 재물로 인해 오히려 주위의 인간관계를 잃었고, 결과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위의 인간관계로부터 사회적 지원이 약화 또는 붕괴되는 과정에서 생활만족도가 감소되거나 파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삶의 질에서 인간관계가 갖는 역동과 관련하여 앞에서 이미 거론한 바와 같이, 경제적 요인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느냐 저하시키

느냐는 물질적인 부가 주위의 인간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성화시키느냐 또는 파괴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느냐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당첨된 거액의 로또복권 때문에 그 돈을 지키는 노예 위치로 급락하여 주위의 인간관계에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주위로부터 사회적 지원의 끈이 약화되거나 극단적인 경우는 끊어지게 되어 결국은 관계를 유지 관리해 나가는 효능감도 낮아지고, 이러한 부정적인 관계 역동의 누적을 통해 삶의 질이 낮아지고 나아가서는 파괴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물론 돈이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촉진하는 도구로 활용될 때 삶의 질을 양양시키는 유익한 도구로 재탄생되기도 한다. 예컨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회 환원을 함으로써 새로운 관계의 네트워킹을 만들 수도 있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창조하는 원천이 될 수도 있다. 로또 복권이 당첨되어 형편이 어려운 아이의 병원치료비를 제공하여 양부모자녀의 돈독한 인간관계로까지 발전하고, 결국 아이가 사망했지만 양부모의 마음에 인정 교류의 소중함을 통해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사례(SBS, 2006년 1월 14일)도 있다.

경제적인 요인은 높은 삶의 질을 위한 필요조건인가 아니면 필요충분조건인가에 대한 개념적 구분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체제 내에서 개인의 경제력은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월수입 1000만원의 상류층 가정이 월수입 100만원의 하류층 가정보다 정확하게 10배 더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돈과 행복이 직선형 비례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돈 자체가 행복을 창조해 내는 마법의 성이 아니라, 돈을 수단으로 활용

하는 사람의 관리능력에 따라 돈이 악화가 되기도 하고 양화가 되기도 한다. 필요조건인 재화를 필요충분조건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혼란 때문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양화의 소재를 악화로 변형시킬 수 있다.

경제적 요인과 삶의 질의 단순상관 관계에 의존하기보다 중간에 매개되는 핵심적 변인들과의 인과적 관계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변인들 사이의 상대적 기여도에 대한 설명을 보다 과학적으로 규명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매개변인으로서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고려해 봄직하다. 이와 관련된 정교화된 연구모형의 구축과 검증이 후속연구과제로 남는다.

행복을 창조하는 비법으로서 자기조절

人不知而不慍，不亦君子乎？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논어 학이편 1절)

우리는 앞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직선형 관계가 아니라 곡선형 관계 양상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다익선은 아니고 적정수준만 있으면 필요한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물론 여기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이냐에 대해 개인마다 그 기준이 일치하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적정수준만 충족되면 그 다음은 그것으로 삶 속에서 자족하느냐 아니면 계속 욕구 불만 상태에 있느냐가 전적으로 개인의 마음 관리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자기자신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여러 현상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

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큰 감사의 소재들이 발견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회의하면 더욱 절망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 그것은 반드시 실제로 그런 일들만이 생겨서가 아니라 본인의 마음이 그렇게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편향된 방향으로 지각하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즉 마음 먹은대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현상도 완벽한 경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갖고 있기 마련이며 단지 두 측면이 구성하고 있는 비율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지각하는 주체가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기울이면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면에 관심을 쏟으면 부정적으로 지각되어질 수 밖에 없다.

자기조절을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삶의 질 지각에서 부정적인가를 보여주는 결과(한덕웅, 2005)가 있다. 예컨대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할수록 주관적인 안녕감이 낮게 나왔다. 이 연구에서도 종합적으로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가 무엇이나는 질문을 하였을 때,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의미에서의 자기조절이 중요하다는 반응이 경제적 요인 다음으로 많았다. 물론 종합적으로 자신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에 대해서도 경제적 요인 다음으로, 부정적 사고라든가 게으름과 같은 자기조절의 결여가 문제인 것으로 높은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성실히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며 자기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 삶의 질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는 인식은, 가정생활과 여가생활 그리고 학

생의 경우는 학교생활 및 성인의 경우는 직장 생활에서의 삶의 질에서 모두 나타났다.

요약하면 한국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현실에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기 조절을 삶의 질 향상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환경 여건이나 외적 자원에만 집중하기 보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으로 중요하다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개인 내적인 자기조절의 중요성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은 비단 삶의 질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학업이나 직업에서의 성취를 위해서(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5; Kim & Park, 2003),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를 위해서(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도 매우 중핵적인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 자기의 마음을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성실한 노력의 자세로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한국 사람의 삶에서 행복을 창조하는 대단한 비법 중의 하나가 자기조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삶의 질 수준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능력보다는 노력이 더욱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심지어는 직장에서의 삶의 질이 능력보다는 노력으로 대표되는 자기조절 요인에 더욱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 직장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익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실제로 구성원의 능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직장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위해 자기조절이나 자기계발의 자세가 개인의 능력차원보다 훨씬 중요한 비중을 갖는 것으로 한국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능력보다 노력이나 성실과 같은 자기조절에

비중을 두는 경향은, 신뢰관계의 형성(김의철, 박영신, 2004a)이나 성취(박영신, 김의철, 2002)와 관련된 한국 사람의 토착심리 탐구 결과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예컨대 한국 사람들이 직장생활에서 신뢰하는 상사나 동료 및 부하직원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도 한국 사람들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노력이나 인내심과 같은 자기조절에 확고한 비중을 두는 것으로 거듭 밝혀진 바 있다. 한국인의 삶 속에서 자기조절이라는 변인이 갖는 심리 행동적인 역동은 중요한 탐구 과제로 남아있다.

교육적 성취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이 함축하는 가능성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논어 학이편 1절)

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삶의 질에 얼마나 관여되어 있는가? 한국 사람의 삶의 질을 설명함에 있어서 교육적 성취가 의미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의 결과를 보면, 종합적으로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학업성취가, 낮추는 요소로 학업에 대한 부담이 포함되어 있었다. 학생들의 경우에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 학업부담을 지적한 경우가 월등하게 가장 많고,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학업성취가 두 번째로 많이 지적되고 있었다. 그리고 여가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 학업부담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학생집단에서보다 오히려 성인집단에서

많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가정생활에서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 사교육을 포함하는 교육문제가 드러남으로써, 교육문제로 인해 부모나 자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또는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취도에 따른 삶의 질 인식에서의 차이에 대한 결과들도 교육적 성취와 삶의 질 간의 관련에 대한 시사를 함축한다. 김의철과 박영신(2004b)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의 경우에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성인들의 경우에 직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직장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게 지각하였다. 또한 임미향, 박영신과 김의철(2006)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종합적인 삶의 질은 관계효능감에 의해 설명되는 변인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학업성취의 순서로 중다회귀분석에 투입되었다. 이 연구에서 초 중 고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도 가정의 경제수준과 연령과 더불어 학업성취도가 포함되었고, 성인의 경우도 가정의 경제수준과 더불어 성취도가 의미있는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이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교육수준이,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 과도한 교육열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한국 사람들의 높은 교육수준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교육열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이 교육적 성취에 대해 갖고 있는 끊임없는 열망(박영신, 김의철, 2003)은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모두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

문에 이것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을 확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인의 교육적 성취가 유교문화와 결부하여 우리의 역사와 사회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가족가치와는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Kim & Park, 2000) 등이 있어왔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교육적 성취가 현대 한국 학생과 성인의 삶의 질의 문제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관계주의 문화에서의 삶과 삶

이상에서 높은 삶의 질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서 원만한 인간관계, 필요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서의 경제적 요인, 행복을 창조하는 비법으로서 자기조절, 교육적 성취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이 함축하는 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삶의 질 인식을 통해 본 한국 사람의 토착심리를 탐구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삶의 질에 대한 인식과는 전혀 다른 연구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성취(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스트레스(김의철, 박영신, 2001), 신뢰(김의철, 박영신, 2004a) 등에 관한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들과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사실들이 밝혀졌다. 연구의 주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결과들이 바로 한국 사람의 토착심리를 구성하는 핵심적 내용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구슬과 같은 이러한 여러 내용들을 하나의 목걸이와 같이 꿰어내는 작업은, 관계 문화라는 개념 틀을 갖고 조망할 때 청사진이 상당히 명료해 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

국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중요시 하는 사고나 행동만이 아니라, 얼핏 보기에는 관계주의와 무관해 보이는 자기조절이나 심지어 교육적 성취마저도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정신은 상당부분 관계문화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집단 내에서의 관계가 원만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욕구에 기초한 자기주장보다는 집단의 조화를 우선으로 하는 자기조절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적인 성취도 그 기저에 있는 동기를 보면 개인적인 성취동기만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죄송함(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이나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기대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의 청소년 중에서 인터넷 ‘싸이’에 가입하여 활동하지 않는 청소년이 없을 정도로 싸이는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한국보다 앞서 미국에서 1997년에 같은 아이디어로 출범한 식스 디그리 닷컴(www.sixdegrees.com)이 문을 닫은 2001년에 한국의 싸이월드는 월간 1억 페이지뷰의 세계적인 기록을 세웠다. 영어로는 사이버의 싸이(cy)이고 한국말로는 사이(間)로서, 인터넷 인구의 절반을 휩쓴 싸이월드의 위력은 바로 한국의 ‘사이(間) 문화’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중앙일보, 2006년 1월 20일) 되고 있다.

한국의 기성세대들은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 개인중심적이라서 이질감을 갖게 된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싸이’를 통해 관계의 통로를 확대하고 즐기는 현대 한국 청소년들의 삶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관계이탈적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관계중심적이며, 단지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라 할 수 있다. 혼자 방안에 앉아서 인터넷에 몰입하고 있지만, 그들은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즐기고 있는 것이다. ‘사이(間)’에서 유래되었고 그것도 가장 가까운 관계를 상징하는 1촌 맺기의 핵심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신세대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세대 차이(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를 불문하고 한국 사회 전체가 얼마나 관계문화에 깊숙이 젖어 지내는지 알 수 있는 실재적인 예이다. 이 연구에서도 인간관계가 가정에서는 화목한 가족 관계(Park, 2002)라든가 학교에서는 친구나 선배 후배 관계라든가 직장에서는 원만한 동료와의 관계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바뀌면서, 한국 사람의 삶 속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 문화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의 토착심리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청소년과 성인 간의 세대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 김의철, 박영신 (1999). IMF시대가 한국인의 스트레스에 미친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4(1), 57~79.
- 김의철, 박영신 (2001). IMF시대 한국 학생과 성인의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77~105.
- 김의철, 박영신 (2004a). 청소년과 부모의 인간관계를 통해 본 신뢰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2), 103~137.
- 김의철, 박영신 (2004b).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73~1002.
- 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영신 (2005).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원 및 질병관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2), 143~181.
- 박영신, 김의철 (2002). 한국 사회의 교육적 성취: 현상과 심리적 기반.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4), 325~351.
- 박영신, 김의철 (2003). 제 4 장. 한국 교육학의 토착화에 대한 회고와 전망: ‘교육심리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50년사 편찬위원회. 자생적 한국 교육학의 미래. 122~161. 서울: 원미사.
- 박영신, 김의철 (2004a).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문화심리학 총서 5.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4b).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 탐구. 문화심리학 총서 6.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IMF시대 이후 초, 중, 고 대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05~135.
-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2),

- 63~92.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중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IMF시대 이후 한국 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1), 103~139.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5). 청소년과 부모의 실패와 미래성취 의식을 통해 본 한국인의 성취관련 토착심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2), 73~108.
- 서경현 (2005). 한국인의 건강과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32~133.
- 서은국 (2005). 왜 한국인의 행복감은 낮은가?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34~135.
- 이순철 (2005).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삶의 질.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101~116.
- 임미향, 박영신, 김의철 (2006). 초등학생의 삶의 질에 대한 분석: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아동교육학회, 아동교육, 15(1),
- 중앙일보 (2006년 1월 20일). 사이(間) 문화가 낳은 싸이 문화.
- 채선애, 한성열 (2002). 여가활동, 여가동기, 자기효능감 및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7~31.
- 한덕웅 (2005). 한국 문화에서 주관안녕에 관련된 사회심리 요인들.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38~139.
- 한창수 (2005). 한국 노인의 우울 증상과 행복.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47~59.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Diener, E., & Oishi, S. (2000). Money and happiness: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Diener, & Suh E. M.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185~218. Cambridge: The MIT Press.
- Diener, E. & Suh E. M. (Eds.) (2000).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Cambridge: The MIT Press.
- Hofstede, G. (1991). *Culture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 Hills.
- House, J. S., Landis, K. R., & Umberson, D. (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 540~545.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m, U.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psychological, cultural and ecological analysis*. NIAS Reports, No. 21. p.40.
- Kim, U. (1999). After the "crisis" in social psychology: The development of the transactional model of scienc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1), 1~19.
- Kim, U., & Park, Y. S. (2000). Confucianism and family values: Their impact of educational achievement in Korea. Freie Universitat Berlin, Institut für Allgemeine Pädagogik. *Zeitschrift für Erziehungswissenschaft (Journal of Educational Science)*, 3(2), 229~249.
- Kim, U., & Park, Y. S. (2003). Chapter 9. An

- indigenous analysis of success attribution: Comparison of Korean students and adults. In K. S. Yang, K. K. Hwang, P. B. Pedersen, & I. Daibo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tributions*. vol. 3 pp. 171~195.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Westport, CT: Greenwood Publisher.
- Kim, U. & Park, Y. S. (2004). Indigenous psychologies. Spielberg, C. (Ed.). *Encyclopedia of applied psychology*, vol 2. 263~269. Oxford: Elsevier Academic Press.
- Kim, U., Yang, K. S., & Hwang, K. K. (2006). *Indigenous and cultural psychology: Understanding people in context*. New York: Springer.
- Ng, S. H., Woo, J., Kwan, A., Chong, A., & Lai, S. (2005). Positive ageing: What is it and why do some people age well? 2005 한국 사회문제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7~45.
- Park, Y. S. (2002).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ubjective well-being: Redefining human agency and meaning systems. Invited address at the 2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p. 101. July, 7-12. Singapore.
- SBS (2006년 1월 14일). 그것이 알고 싶다: 벼락부자, 그 후 - 부자라서 행복하십니까?
- 1 차 원고 접수일 : 2006. 1. 19
최종 원고 접수일 : 2006. 2. 7

K C I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for individuals and Korean society: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across different generations

Youngshin Park

Dep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Uichol Kim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for individuals in the family, school or workplace, leisure settings, and Korean society using the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A total of 3,406 participants, consisting of 1,331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students and 2,075 parents and teacher, completed an open-ended questionnaire developed by Kim and Park (2004b). The respondents report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quality of life in Korean society as follows: Economic condition, collective effort, leisure and cultural life, harmoniou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ffective government policy, and educational attainment. The factors that reduce quality of life in Korean society are as follows: Economic uncertainty, political instability, lack of citizenry, ingroup favoritism, corruption, lack of facilities for leisure and social life, and overemphasis on educational achievement. Seco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quality of life in the family are as follows: Harmonious family relations and financial security. For students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academic achievement are reported as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at school. For adults, harmonious interpersonal relationship, financial factors and occupational achievement are reported as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at the workplace. For leisure and social life, financial security, leisure tim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re reported as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Third, as for generational differences, students reported political instability and adults reported economic uncertainty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reducing quality of life in Korean society. For family life, students reported conflicts among family members and adults reported financial constraints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reducing quality of life. For leisure and social life, students reported lack of leisure time and adults reported financial constraints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reducing quality of life. Fourth, for student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were associated with higher quality of life: Higher socio-economic status of the family, younger, and higher academic achievement. For adult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were associated with higher quality of life: Higher socio-economic status of the family and greater achievement their social lif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on the quality of life in Korea, focusing on human relationship, financial factors, self-regulation and educational achievement are discussed.

key words : Quality of life, indigenous psychology, generational differenc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regulation, academic achievement, financial status